

公的開發援助의 歷史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1.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업 무 자 료

협력정책 2001-4-79

公的開發援助의 歷史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1.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본 자료는 OECD/DAC가 작성한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96)를 번역한 것으로서 1944년부터 1993년에 이르기까지 ODA에 관련된 주요기관 설립, 정책 및 개념, 문건, 인사 등이 망라된 ODA 역사서입니다. 또한 1993년 이후 2000년까지의 DAC의 주요 활동 및 정책에 관해서는 DAC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작성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Dates"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번역에는 김복희, 조한덕, 김창원이 참여하였으며, 협력정책팀에서 편집하였습니다.

목 차

1. 개발원조위원회 및 개발협력국의 역사	1
● DAC 설립이전 초기 개발협력 제안	1
1950년	4
1955년	5
● 개발원조그룹(DAG) 및 DAC 설립	7
1960년 : DAG 설립	7
1970년 : DAC의 다자간 비조건부 원조에 관한 노력	27
1980년 : 원조효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	45
1990년	73
2000년	91
2. DAG/DAC의 연도별 권고문 및 지침 목록	93
3. DAC의 부속기구 설치 목록	96
4. DAC의 최근 정책문서(전문)	97
□ INDEX	114

1. 개발원조위원회 및 개발협력국의 역사

● DAC 설립이전 초기 개발협력 제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와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의 설립은 개별 국가 및 국제원조기구, 원조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공적개발원조는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산하의 경제협력기구와 프로그램, 미국의 Point Four Program과 공산주의권의 접경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마샬플랜(Marshall Plan)의 성공은 외부에서의 원조가 상이한 조건에 처한 빈곤국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과대 평가된 낙관적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DAC의 설립 이전에 나타난 개발협력의 중요한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1944년 -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동맹국의 참석하에 개최된 UN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 1945년 -

샌프란시스코 UN회의에서 50개국의 대표들은 UN헌장을 작성하였다. UN구성원들은 UN헌장의 전문에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과 “모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구를 이용하였다.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Quebec 회의에서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영국은 식민지 개발 및 복지에 관한 법(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을 통해 영국의 개발원조 방향을 재편하였다. (1929년과 1940년에 각각 제정된 선행 관련법이 있다.)

- 1946년 -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최초로 UN의 전문기관이 되었다.

UN총회는 UN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을 창설하였고, UN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를 설립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활동에 착수하였으며, 필리핀의 독립으로 脫식민지화가 진행되었다. 프랑스는 식민지령 경제사회투자기금(Fonds d'investissement économique et social des territoires d'oute-mer: FIDES)을 설립하였다.

- 1947년 -

인도, 파키스탄이 독립하였다. 6월 5일 하버드대학 연설에서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 George C. Marshall은 “모든 국가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유럽국가가 동의하는, 통합된 (should be a joint one, agreed to by a member, if not all, European Nations)” 유럽 전후복구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초로 개진하였다. 마샬플랜은 상호협력적이고 합의된, 그리고 책임이 주어진 화해와 재건의 전략적 틀 속에서 대규모 원조를 유럽국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 1948년 -

마샬플랜의 수원국들은 4월 16일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경제협력청(Economic Cooperation Agency: ECA)을 창설하여 1948~51년간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 ERP)을 지원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설립되었으며, 스리랑카가 독립하였다. 영국에서는 해외자원개발법(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ct)이 통과되어 식민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UN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천명하였다. (동 선언은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UN규약에서 구체화되었다.)

- 1949년 -

트루먼 미국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밝힌 Point Four Program을 위한 개발원조계획을 제안하였다. 1950년 상원에서 채택된 국제개발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Point Four Program의 추진을 허용하였다.

UN은 확대기술원조계획(Expanded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 EPTA)을 설립하였다.

OEEC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으로 구성된 해외영토위원회(Overseas Territories Committee)를 설립하고, 해외영토의 경제·사회 개발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위임하였다.

- 1950년 -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였다. 영연방은 콜롬보플랜(Colombo Plan : Council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을 창설하였다. 콜롬보플랜은 지역회원 3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과 4개의 공여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으로 창립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1951년에, 일본은 1954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 1951년 -

UN은 소위 “루이스 보고서(Lewis Report: 저개발국가의 경제 개발책도)”를 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주로 공공부문 증진을 위한 경제개발 UN특별기금과 투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공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1952년 -

미국의 대외원조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초는 “상호안보법 (Mutual Security Act)”에서 1961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 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이란, 요르단, 파키스탄에 대해 주요 원조사업을 제공하였다. 원조사업은 마샬플랜 원조를 담당했던 경제협력청(Economic Cooperation Agency: ECA)의 업무를 승계한 상호안보청(Mutual Security Agency: MSA)이 담당하였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나찌 정권하의 反유대인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35억DM 상당의 현물과 현금 배상지불협정을 체결하였다.

- 1954년 -

미국은 공법 480조(PL 480)에 의해 식량원조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 1955년 -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비동맹 개념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착수하였다.

- 1956년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회원국, 특히 저개발지역의 민간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개도국인 아르헨티나의 다자간 공적채무 재협상을 위한 비공식 회의로서 프랑스를 의장국으로 한 “파리클럽(Paris Club)”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로코와 튀니지가 각각 독립하였다.

- 1957년 -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설립 근거가 된 로마협정에 의거, 역외 국가 및 영토에 대한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이 창설되었다. 한편 가나의 독립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의 시발점이 되었다.

- 1958년 -

세계은행 총재의 제안에 따라 인도의 국제수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창립회원국은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및 세계은행이다.

세계교회평의회는 개도국에 대한 무상협력 및 양허성 차관이 최소한 선진국 국민소득의 1%가 되어야한다는 “1% 목표(1 per sent target)” 개념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각국 UN대표부에 배포하였다.

- 1959년 -

UN은 기존의 기술협력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창설하였다. 19개 남미국가와 미국은 양허적 조건의 사회발전신탁기금을 포함하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을 설립하였다.

● 개발원조그룹(DAG) 및 DAC 설립

- 1960년 : DAG 설립 -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이 개도국 지원에 관한 공여국간 자문 포럼으로 설립되었다.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의 C. Douglas Dillon 국무차관보가 창립을 주도하였다. 1월 13일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특별 경제위원회의 회합에서 DAG가 제안되었다. 창립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미국 및 유럽 경제공동체 등이다. 일본은 창립직후 가입하였고, 네덜란드는 동년 7월에 가입하였다.

3월 9일~11일간 최초의 DAG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7월 5일~7일간 독일 본에서 개최된 두번째 회담에서 대 개도국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결의를 채택하였다. 10월 3일~5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번째 회담에서는 많은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투자 前단계의 기술원조와 DAG 회원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자금흐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에 관한 합의도출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다.

7월 OECD 본부의 고위급 회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DAG 실

무반 회합에서는 대 개도국 자금흐름에 대한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워싱턴, 런던, 동경에서의 DAG 회담을 준비하였다.

12월 14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 개편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OECD 명칭에 “개발”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 1961년 : 공동원조노력 결의와 DAC의 설립 -

3월 27일~29일 런던 대교회당에서 개최된 DAG 4차 회담에서 George Ball은 미국의 케네디 신정부를 대표하여 공동원조노력 결의를 제안하였고, 참가자들은 이를 채택하였다. 1960~61 회계년도에 미국은 대 개도국 공적원조 총액의 40% 이상을 분담하였고, 1/3은 영국과 프랑스가 충당하였다. DAG는 파리에 본부와 상근의장을 둘 것에 합의하고, 의장에 미국 대표를, 부의장에 프랑스 대표를 후보자로 각각 추천하였다.

전임 미국 경제원조청장인 James W. Riddleberger가 DAG 최초의 상근의장에 피선되었고, 프랑스 재무부의 Jean Sadin 대외재정국장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3월 OEEC는 1964년까지 지속된 정례 연차보고서의 후속 간행물로 최초의 종합조사보고서인 “개도국에 대한 재원의 흐름, 1956-59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Countries in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1956-59)”을 출간하였다.

DAG는 마지막 5차 회담을 7월 11일~13일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DAG는 대 개도국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세계은행에 실현 가능한 다자간 투자보증 체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DAG는 “원조노력의 균등분담(equitable sharing of the aid effort)” 조항을 포함, 공동원조노력 결의 이행에 대한 제안 사항을 토의하였다. 공동원조노력에 대한 개별국가의 분담사항 논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검토절차에 대한 권고안 작성을 위해 공동원조노력 실무반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그룹은 공동원조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common aid effort might be better co-ordinated)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미국의 OECD 개발센터 설립 제안에 합의하였다.

9월, OECD는 활동을 개시하였는 바, 사무총장에는 Thorkil Kristensen(덴마크), 사무차장에는 Michael Harris(미국), Jean Cottier(프랑스)가 각각 임명되었다.

♣ OECD 개발센터의 설립 ♣

Luciano Giretti(이탈리아) 사무차장보의 주도 하에 OECD 사무국 내에 개발부(Development Department: DD)가 신설되었다. 동 부서는 개발재정지부(Development Finance Branch)와 기술협력지부(Technical Co-operation Branch)의 2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다. 개발재정지부 산하에는 재정정책과 및 경제개발과를 설치하였다. 개발재정지부는 이후 1969년에 개발원조국(Development Assistance Directorate: DAD)으로, 1975년에는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으로

개편되었다. 기술협력지부는 기술원조위원회를 지원하였다. 동 위원회는 회원국 기술협력사업의 계획을 담당하고, 후에 기술 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ECO)로 개편 되었다.

♣ DAC 임무(Mandate) ♣

1960년 7월 23일 각료급 결의 [OECD(60)13] 에 따라 OECD의 설립과 함께 개발원조그룹(DAG)을 개발원조위원회(DAC)로 개편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한다.

- ① 동 위원회는 향후 공여국의 재원으로 개도국 및 지역을 지원하고 장기자금지원 및 기타 개발원조를 확대,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 자문한다.
- ② 동 위원회는 OECD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조그룹의 기능, 특성 및 구성원 자격을 취득한다.
- ③ 동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와 DAC회원국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여된 권한 하에서 제반 문제에 대해 위원회와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 의제에 대해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 ④ 동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OECD를 대표할 수 있다.
- ⑤ 동 위원회가 ①항에서 정해진 책무 이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非DAC 회원국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공동원조노력의 결의 ♣

(1961년 3월29일 런던에서 개발원조그룹 채택)

개발원조그룹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저개발 국가의 열망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증대하고 이러한 지원을 수원국의 요구에 부합시킴으로써 저개발 국가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회원국은 저개발국이 이용 가능한 총 재원의 규모를 확보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공동목적으로 삼는 권고안에 합의한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기반 하에서 제공된 원조가 저개발국가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상업적 조건의 민간, 공공금융이 비록 유용하고 고무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몇몇 저개발국가는 공동원조노력을 통해 외채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상환을 포함, 우호적 조건의 공여 혹은 차관형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소들의 긍정적, 혹은 저해요인을 고려하면서, 회원국의 양자 및 다자를 포함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계량적 측면과 본질적 측면 모두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다.

각 국 정부가 공동 원조노력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경제규모와 모든 기타 관련요소를 포함한 각 국의 여건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반 원칙 연구에 대한 권고를 합의한다.

사무국이 보좌하는 의장은 제안된 검토 및 연구와 관련하여 개발원조그룹에 대하여 리더쉽을 발휘하고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데 합의한다.

- 1960~61년 : 주요 관련기관의 발전 -

1960년의 DAG 및 DAC의 설립은 현재의 원조체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196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주요 관련기관의 비약적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

1960년 세계은행은 최빈국에 연성차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9억달러의 설립출자금으로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설립하였다.

1960년 세계은행 산하에 파키스탄 컨소시엄을 (1958년에 설립된 인도 컨소시엄을 모델로 함) 설립하였고,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세계은행이 창설에 가담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 대외원조국(External Aid Office)을 창설하였고, 이는 1968년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UN총회는 1960년대를 “UN개발 10년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UNDD)”으로 선정하고 2개의 명확한 목

표를 설정하였다. ① 1970년까지 개도국의 연간 성장률 5% 달성, ②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자본의 흐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의 총 국민소득의 약 1%에 도달하도록”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1961년 쿠웨이트는 아랍경제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1961년 프랑스는 원조전담 협력부를 설치한 최초의 국가로서, 동 부처는 신생 개도국(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다.

1961년 미국은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여 경제원조에 대한 기초적 법제화를 구축하고 양자간 경제원조를 관장할 국제개발청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설립하였으며,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10개년 대 남미 협력계획인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등을 출범시켰다.

독일은 1961년 포괄적 개발원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① 대규모 개발협력기금에 대한 의회 승인, ② 자본원조를 위한 독일 개발은행으로서 부흥금융금고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를 선정, ③ 개발원조를 전담하는 독립부처인 경제협력부를 창설하였다.

일본은 1961년 대 개도국 개발차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¹⁾을

1) OECF는 1999년 일본 수출입은행과 통합하여 국제개발은행(JBIC)으로 개편됨.

설립하였다. 1962년에는 일본 기술원조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외기술협력청(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OTCA)을 설립하였다. OTCA는 1974년 일본국제협력사업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 통합되었다.

1961년 설립된 스웨덴의 국제원조청(Agency for International Assistance)은 1965년에 스웨덴 국제개발청(Swed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uthority: SIDA)으로 전환되었다.

스위스 의회는 1961년 최초로 대 개도국 협력을 위한 “신용 프로그램(programme-credit)”을 의결하였으며, 기술협력은 외무부가 주관하였다.

♣ DAC 의장의 최초 연례보고서의 권고사항 ♣

(1962년 9월)

① DAC 회원국의 저개발국가 지원노력은 실질적이며 증가되고 있다. 저개발국이 필요로 하는 대외금융지원 총량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수요가 현재 재원의 흐름을 초과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발원조 규모확대 노력을 경제적 능력과 예산범위로 한정하여 안주해서는 안 된다. 개발원조 계획을 확대함에 있어 대중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어야 한다.

② 개발원조위원회의 몇몇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보다 원조규모

와 역량면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는 원조규모면에서 특정국가에 대해 원조노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대적 원조규모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와의 현재 및 과거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를 포함한 제반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재정적 의미에서 원조를 정의하는 데 있어, 수원국의 전반적 필요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선형적 우월성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최대한의 개발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원조계획과 특정 수원국에 대한 기부는 효율적인 협조관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최근 개발원조위원회가 발전시킨 “협조그룹(Coordinating Group)” 개념은 선택적 범위 하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IBRD와 기타 해당 국제기구는 공동작업을 위해 가능한 많이 초청되어야 한다.

⑤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들은 장기적 개발목표와 원조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야 한다.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원조사업 효과 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개발원조위원회 내에서 경험을 교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개발국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조적 노력은 개발원조의 효과와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원국은 기존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원조의 지리적인 균형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⑦ 원조의 구속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 ⑧ 다자간 원조기구의 기능이 중요하다. 회원국은 이들 기구의 재정이 충분한 지를 조속히 판단하여야 한다.
- ⑨ 저개발국가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더욱 연구하여야 한다.
- ⑩ 회원국은 무역과 원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1962년 : DAC는 원조검토서, 의장보고서,
원조통계보고의 출간을 시작 -**

DAC는 개별 회원국의 개발원조 성과와 정책에 대한 연례 검토보고서인 원조리뷰(Aid Reviews)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9월에 DAC 의장보고서 제1호가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성과와 정책(DAC Member's Development Assistance Efforts and Policies)”이라는 표제로 출간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특히 DAC가 추구하는 의제와 원칙의 전반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1차 DAC 고위급회의가 7월에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원조리뷰 창간호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DAC는 비교 가능한 대개도국 원조 및 재원의 흐름에 대한 보고지침 (Directives for Reporting Aid and Resour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을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원조의 금융조건을 향상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은 개도국 채무에 대한 영향과 고통분담에 대한 고려의 관점에서 DAC의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관심사중 하나이다. DAC의 권고안은 끊임없이 무상공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관의 양허율이 평균치 이하인 특정 국가들(당시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인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원조조건 특별실무반(Special Working Party on the Terms of Aid)이 설립되었다.

DAC 기술협력 실무반(DAC Working Group on Technical Co-operation)이 설립되었고, 노르웨이가 DAC에 가입하였다. OECD는 개발센터 설립하였는데, 동 센터는 1964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OECD는 터키 컨소시엄을 창설하였다.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 자문단을 최초로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개발원조 형태의 협조체계를 제안하였다.

벨기에는 개발협력국(Offi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CD)을 창설하였으며, 1971년에 개발협력청(General Administr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GCD)으로 개편되었다.

덴마크 의회는 개도국을 지원키 위한 기술협력법을 승인하고 기술원조와 자본원조 계획을 실시하였다. 외무부내에 원조협력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동 사무국이 1971년 외무부에서 분리되어 덴마크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으로 전환되었다.

노르웨이 국제개발청(Norweg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창설되어 원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알제리가 독립하였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대 알제리 원조규모는 프랑스 GNP의 0.7%에 달했다.

- 1963년 : 최초의 DAC 권고안(Terms Recommendation) -
DAC 의장에 Williard L. Thorp가 피선되었다. 동 인은 미국 경제부 차관보, GATT 협상 미국대표 및 미국 통계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부의장으로는 프랑스 재무부 대외재정국장 André de Latte가 선출되었다

DAC는 원조조건에 대한 결의(Resolu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id)를 채택하였고, 동 결의안은 DAC 회원국에게 원조조건을 개도국, 혹은 특정 국가의 환경에 맞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덴마크가 DAC에 가입하였다. UN이 로마에 설립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과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식량원조를 활용하고 긴급재난구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네덜란드 외무부에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차관이 임명되었다. 동 기능은 1965년에 개발협력부로 이관되었다. 1964년에는 네덜란드 외무부내에 국제협력국이 창설되었다

- 1964년 -

DAC는 원조요청 실무반(Working Party on Assistance Requirement)을 창설하여 원조요청과 이러한 요청에 대한 원조공급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였다.

DAC는 남미지역기구들(미주개발은행 IDB의 Ortiz Mena 은행장, 미주기구 OAS, 진보를 위한 동맹 미주위원회 Inter-American Committee on the Alliance for Progress: CIAP, 중미경제통합은행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L)과 동지역 개발문제와 개발수요를 협의하였다. DAC는 중동과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문제를 토의하였다.

DAC는 원조조건 실무반을 개발원조재정 실무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개편하였다. DAC는 UNCTAD 실무반을 설립하였다.

제1차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모든 사람을 위한 세계무역 문제와 특히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무역과 개발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국제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 AfDB)이 설립되었다(소재지: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유럽경제공동체와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국가협의체간의 제1차 야운데 회의는 제2차 유럽개발자금(European Development Fund)을 설립하였다.

영국은 몇몇 정부부처에서 실시되던 원조업무를 이관하여 사실상 원조사업을 전담하는 해외개발부(Overseas Development Ministry: ODM)를 창설하였다. 동 부처는 1970년 해외 및 영연방국 원조기관인 해외개발청²⁾(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ODA)으로 개편되었다

UN개발계획위원회(UN 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가 설립되었다(당시 개발의 계획 지향적인 인식 반영). 이후에 노벨상을 수상한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Jan Tinbergen이 다년간의장직을 역임하였다.

- 1965년 -

DAC는 새로운 금융조건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에서는 적절한 금융조건과 함께 목적과 수단, 금융조건의 조화 및 일반적 완화, 조건부 원조 방법, 非프로젝트 원조와 수원국 재정 부담에 대한 필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Woods 은행장은 DAC 고위급회의에서 개도국의 재원의 수요에 대해 보고했다. 회원국은 1964년 UNCTAD에서 채택한 바 있는 국민소득의 1% 목표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DAC는 대 개도국 민간투자에 관하여 OECD 경제산업자문위

2) 영국 해외개발청은 1996년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격상시켜 독립적으로 운영됨.

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의 제1차 회담을 개최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DAC에 가입하였다. Robert Buron의 후임으로 프랑스의 André Philp이 개발센터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몇몇 개도국에서 개발전략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순회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UN기술원조확장계획과 UN특별기금을 합병하여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설립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여 1975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에서는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인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 1966년 -

원조조정을 향상시키는 것은 설립 초기부터 DAC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1966년 DAC는 기술협력의 조정지침(Guidelines for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을 승인하였다.

DAC는 일찍부터 개도국이 농업개발과 식량생산에 중점을 두도록 역설하고, 동 분야에 대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동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1966년 DAC 고위급회의에는 Humphrey 미국부통령, Rusk 미국국무장관, Freeman 미국농무장관, Sen FOA 사무총장, Woods 세계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 토의하였다.

OECD 본 회의는 OECD/IBRD 공동으로 개별적 무상공여와 차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대외차관 확대보고시스템(Expanded

Reporting System on External Lending)의 도입을 승인하였다. 이는 후에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으로 발전하여 DAC가 운영하게 된다. 호주가 DAC에 가입하였다.

DAC는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 국제개발재단의 원조평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은 원조기관의 핵심적인 관심사로서 베를린 세미나는 관련 공무원이 만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보다 체계적인 DAC의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개발센터는 Goran Ohlin이 집필한 “대외원조정책 재고(Foreign Aid Policies Reconsidered)”를 출간하였다. 기술협력지부는 Maurice Domergue를 책임자로 하여 기술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개발협력사업부(Development Co-operation Service)로 개편되었다. 기술협력정책과는 개발원조국으로 이전되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제4부를 추가함으로써 GATT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정 사안과 관심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다.

- 1967년 -

Edwin McCammon Martin이 DAC 의장에, 프랑스의 Paul Blanc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Martin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국 부대표, 경제담당 국무차관, 미주담당 국무차관,駐아르헨티나 미국대사를 역임하였다. Blanc은 프랑스 재무부의 대외재정국장을 역임하였다.

원조노력의 분담문제는 초기단계부터 DAC 작업의 중요한 과제로서 적절한 방법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1967년에 DAC는 처음으로 “국민소득 대비 총 공적원조(Total Official Contributions as Per Cent of National Income)"에 대한 자료를 출간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설명자료를 수록하였다. (1967 DAC 의장보고서 Annex II)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국가가 제안하고 Martin 의장의 강력한 지원하에 DAC는 개도국의 급속한 인구성장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인구분야에 대한 대외지원을 검토하였다.

DAC 원조요청실무반의 전문가반은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계량적 원조모델(Quantitative Models as an Aid to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을 연구하였다. 동 전문가반은 의장에 Philip Hayes, OECD 개발센터의 Edgar Kröller가 지원하였으며, Bezy 교수(벨기에), R. Froment(프랑스), Dürr 교수(독일), Forte 교수(이탈리아), Fukuchi 교수(일본), Tinbergen 교수(네덜란드), A. L. Marris(영국), Chenery 교수(미국), Ravi Gulhati(세계은행), G. Asenis(개발센터)가 참가하였다.

OECD는 6월 5일에 전임 ECA 청장 Paul Hoffman이 참석한 가운데 마살플랜의 기원이 된 하버드 대학에서의 마살장군 연설 20주년을 기념하였다. DAC는 민간투자 특별실무반을 설립하였는데, M. Nebot(프랑스), Lamby(독일), Harding(영국), Kupers(네덜란드), Shaeffer(EEC) 등이 참여하였다.

UN총회는 인구신탁기금(Trust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을 설립하였다. 동 기관은 1969년에 UN인구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으로 개칭되었다. UN전문가는 대 개도국 자금흐름 측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 예산을 1971년까지 純국민소득의 1%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3년에는 1976년까지 1.5%로 증액할 것을 결정하였다.

- 1968년 -

캐나다는 자국의 대외원조기관으로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설립하였다. DAC는 소요재원을 포함, 다자간 개발기구 개혁 및 개도국의 교육 분야에 대한 외부원조를 검토하였다. 또한 DAC는 원조를 대한 국민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OECD 개발센터의 후원 하에 작성된 사회적인 비용/편익 분석(social cost/benefit analysis)은 DAC 내에서 프로젝트 평가 방법론에 대한 주요 논의를 야기하였다.

OECD 개발센터는 Robert Buron 총재(부총재 Goldsmith)에서 Andre Philip총재(부총재 I.M.M. Little)로 이어지는 기간 중에 Ian Little, Tiber Scitovsky, Maurice Scott 주도로 이루어진 “개도국의 산업과 무역”이라는 연구를 후원하였다. 동 연구는 수출, 시장 및 효율성 지향의 개발전략을 적극 제안한 바, 효과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가 DAC에 가입하였다.

DAC는 통계문제에 관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였으며, 의장은 영국의 Mr. Harvie가 맡았다. 북유럽위원회(Nordic Board)는 DAD에 탄자니아 Kibaha Project에 대한 북유럽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뉴델리의 UNCTADⅡ는 개도국으로의 자원의 흐름에 대한 기준은 국민소득(National Income) 대신 국민총생산(GNP)의 1%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UNCTADⅡ는 개도국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66년 OECD에서 시작된 GSP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1971년 OECD 회원국들의 특혜관세 실시로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동시에 GSP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한 OECD 특혜관세자문그룹(OECD Group on Preferences)이 설립되었다.

미국의 Tidewater에서 Ed Martin DAC 의장의 주관 하에 원조기관장들의 비공식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례모임이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개최되었다.

노르웨이 의회는 원조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기원조계획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스웨덴 의회는 중기원조계획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부법안을 채택하였다. 동 계획은 원조액이 1975/76 회계년도 GNP의 1%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스웨덴은 이후 이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

- 1969년 : DAC의 ODA 개념 채택 -

DAC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을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조건으로 설정하고, 기타공적자금흐름(Other Official Flows: OOF)을 ODA로부터 분리하였다. 증여율(Grant Element)의 개념이 양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1969년 DAC 의장 보고서(DAC Chairman's Report)는 처음으로 "GNP 대비 ODA 비율"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 다양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개념과 논리를 설명하였다.

DAC 개발원조 재정실무반(DAC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은 개도국들의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에 착수하였다. 동 연구결과는 1974년에 개도국의 부채문제(Debt Problems of Development Countries)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후 Creditor Reporting System 등에 입각한 광범위한 채무통계의 수집과 발간이 OECD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DAC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경제위원회, 메콩위사무국 등과 같은 아시아 관련 기구들과 개발문제 및 동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다. DAC는 원조와 개발에 관한 DAC 회원국의 의원 모임을 조직하였다.

동년 9월, 네덜란드 Emile Van Lennep가 Thorkil Kristensen의 뒤를 이어 OECD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사무차장으로는 미국의 Benson E.L. Timmons III세와 프랑스의 Gerard Eldin이 선임되었다.

새로운 DAC의 ODA 개념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GNP 대비 ODA 0.7% 목표치를 제시한 “개발에 관한 Pearson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0.7% 목표치는 1970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는 1967년 George Woods의 제안을 받아 세계은행의 McNamara 총재가 1968년에 작성토록 한 것이다.

R.G.A. Jackson은 Jackson 보고서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UN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World Employment Programme을 출범시키고, 실업의 원인을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별조사단을 조직하였다.

- 1970년 : DAC의 다자간 非조건부 원조에 관한 노력 -

5월의 OECD 각료위원회는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DAC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즉, ①원조규모, ②조건부 원조(tying aid)의 점진적인 축소, ③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tariff preferences)의 도입, ④OECD 내에서 개발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도 깊게 접근하고, 국가차원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이다.

DAC는 설립초기부터 조건부 원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몇몇 DAC 회원국들은 원조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의 효과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조건부 원조가 국민의 지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1969년, 스웨덴은 조건부 원조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제시하

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일본도 망설임 끝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오랜 협의를 통하여 조건부 원조의 철폐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동년 9월 도쿄에서 개최된 DAC 고위급회의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에 언급되었다.

“非조건부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그들의 양자간 개발차관을 非조건부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회원국들은 DAC내에서 非조건부 차관제공 시행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논의키로 하고, 각 국 정부차원의 세부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원조규모의 상당부분을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非조건부로 제공하고 있던 국가를 포함, 다른 회원국들은 동 원칙이나 이러한 체계의 긴급성에 동의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들은 이와 같은 협약체결에 대한 추가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편, 그와 같은 계획은 자신들의 특수 상황과 원조내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회원국으로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점증하는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던 미국도 결국 다자간 非조건부 원조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

DAC는 민간투자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DAC 회원국들이 대 개도국 민간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최초로 조사결과를 발간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Developing Countries”라는 자료는 1972년, 1975년, 1978년, 그리고 1983년에 각각 발간되었다.

DAC는 Hague-Wassenaar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후원하에 원조 평가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DAC는 상당한 토의 끝에 동료회원국에 대한 원조정책 검토회의(Aid Review)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대상국은 노르웨이, 독일, 영국이었다.

영국의 Mr. W.L.Kendall이 의장으로 있던 특별그룹(Ad Hoc Group)을 대체하여 통계문제실무반(Working Party on Statistical Problems)이 설치되었다.

UN총회는 제2차 UN개발 10년(Second UN Development Decade)을 선언하고, ODA 목표치를 GNP 대비 0.7%로 하고, 동 목표를 “10년 기간의 중간 시점”까지는 달성토록 한다는 10년 기간의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 1971년 -

DAC는 원조의 현지조정문제를 검토하고 회원국을 위한 원칙을 제안하였으며, 한편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의 연성개발차관 설립에 관한 준비모임을 개최하였다.

DAC 회원국들의 연구분야 우선순위를 조언하기 위하여 DAC는 개발정책위원회와 개발센터의 공동후원과 DAC 의장의 주도 하에 개도국을 위한 과학기술 기획그룹(Planning Group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ing Countries)을 설치하였다.

10월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DAC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LDCs)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개도국의 고용문제(Employment Problem in Less-Developed Countries)에 관한 개발센터의 연구는 개도국의 실업과 관련한 주요 통계지표를 계량화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과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Paul Marc Henry가 Prof. M. Yudelman(부총재 겸 총재 대행)의 뒤를 이어 개발센터의 총재직을 승계하였다. Anne de Latte가 Francis Wells의 뒤를 이어 프로그램 및 부문 정책과장(Head of Programme and Sector Policies Division)이 되었다. 동 부서의 종전 명칭은 경제개발과(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이었고, 후에 원조관리과(Aid Management Division)가 되었다.

개발계획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의 권고에 따라 UN총회는 최초로 25개국을 최빈개도국(LLDCs)으로 분류하였는데, 2001년 4월 현재 49개국이 LLDCs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이 세계은행, FAO, UNDP의 후원하에 설립되었다.

- 1972년 -

DAC는 ODA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에 동의하였는 바, 이에 따른 정의는 현재까지 유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 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제공한 자금 흐름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주요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동 ODA 정의는 DAC 회원국의 OD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금융조건의 목표치를 증여율 84%로 설정하자는 DAC 금융조건 개정권고안(revised DAC Terms Recommendation)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최빈개도국(LLDCs)에 대해서는 특별조건이 권고되었다. 이탈리아는 동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았다가 1993년에서야 보류결정을 취소하였다.

DAD는 개발원조평가(Evaluating Development Assistance)를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주로 1970년 Wassenaar 세미나에 근거하여 원조의 방법과 조직상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효과적인 관리기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제시하였다.

OECD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회기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ECSS)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상당부분의 시간을 新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구축을 요구하는 개도국과의 협상준비와 남북문제에 할애하였다. 스위스의 Jolles 대사가 의장직을 맡고, 프랑스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인 Jean-Claude Paye가 그 뒤를 이어 의장이 되었다.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연성차관 창구로 설립되었다. 동 기금 설립에 지역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인간환경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UN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로마클럽(Club of Rome)의 후원 하에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가 발간되었다.

- 1973년 : 개발협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

BHN 및 新국제경제질서 강조 -

OECD 이사회는 개발협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착수하고 DAC가 개발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점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DAC는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원조 및 기타 자원의 규모와 조건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발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①DAC 뿐만 아니라 OECD 조직의 여타 기구 및 개발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과제를 확인하고, ②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기구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개발과제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오일쇼크로 “남북관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1974년과 1975년 참조)

동 년 10월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개발에 있어서의 “위기”, 즉 개발원조에 대해 가해지는 종종 모순되는 비판에 대해 논의되었다. 동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비판중 일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로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DAC는 개발협력 노력을 강화하여 개발원조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 및 개발문제와 지금까지 이룩한 개발 진전사항을 일반 대중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 각자 뿐만 아니라, DAC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협력은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몇몇 국가의 상황 때문에 그리 밝지만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노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DAC는 개발협력과 개발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동 고위급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은 다자간 기구에 대해 비조건부로 기부금을 출자하는 데 동의하였다.

DAC는 개도국들의 노력과 성과를 원조배분 정책의 지침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성과개요 - 개도국이 달성한 경제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작업의 종합 결과 (Performance Compendium - Consolidated Results of Analytical Work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ies)”로 발간하였다. DAC는 빈곤, 실업 및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관한 증폭된 관심을 반영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원조문제를 검토하였다.

DAC는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주최로 암스테르담의 왕립열대연구소(Royal Tropical Institute)에서 원조평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뉴질랜드가 DAC에 가입하였다.

세계은행의 Robert McNamara 총재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은행/IMF 회의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가 절대빈곤을 억제하는데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에서는 개발원조가 인간의 기본욕구(BHN)를 충족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하는 입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1961년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을 수정한 것이다.

McNamara 총재의 연설과 미국의 “새로운 방향” 입법은 개발과 원조정책에서 BHN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주요 논의를 유발하였다. 新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은 BHN을 강조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논의의 전개과정은 1974-77년을 참조)

- 1974년 : 유가파동(Oil Price Shock) -

동년 1월 USAID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Mr. Maurice J. Williams가 DA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DAC는 OPEC의 결정에 따른 유가파동 및 식량부족과 아울러 높은 식품가격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특히 UN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Most Seriously Affected) 국가들”로 규정된 33개 개도국들에 미치는 영향과 원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OECD는 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을 설립하여 Ulf Lantzke가 초대 대표를 맡고, Helga Steeg가 대표직을 승계하였다.

10개 DAC 회원국들은 "개도국에서의 조달과 관련한 비조건부 양자간 개발차관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DAC는 식량과 농업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이후 이 문제는 정기적인 점검의 과제가 되었다. 또한 사하라 주변지역의 한발로 야기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제원조(relief assistance)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스웨덴은 DAC 회원국중 ODA/GNP 비율 0.7% 목표치를 달성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어 1975년에 네덜란드, 1976년에 노르웨이, 1978년에 덴마크가 동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포르투갈은 DAC에서 탈퇴하고, 자국을 DAC의 개도국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포르투갈은 1991년에 DAC에 재가입하였다. 포르투갈은 자국의 이전 해외 식민지에 대하여 GNP 대비 1.7%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주로 실시한 바 있다.

DAD/DCD는 채권국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를 전산화하였다. 제6차 UN총회 특별회기는 신국제경제질서 구축에 관한 행동계획 및 선언(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을 채택하고,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개도국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계획(Emergency Operation)을 발족시켰다.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세계인구회의(World Population Conference)는 세계인구행동계획(World Population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는 UN 총회에 36개국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세계식량위원회(World Food Council)의 설립을 요구하고,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국제 연대(International Undertaking on World Food Security)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1975년부터 식량원조 목표를 매년 최소한 곡물 1천만톤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다국적기업 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및 UN다국적기업 센터(UN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양식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국제금융시스템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개혁 특별위원회인 20인 위원회(Committee of Twenty)는 개혁방향에서 제안한 국제금융시스템에 관한 IMF 이사회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MF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를 설립하였다. 또한 20인 위원회의 제안으로 약칭으로는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라고 하는 "개도국으로의 자원이전에 관한 세계은행 및 IMF 이사회 공동 각료위원회(Joint Ministerial Committee of the Boards of Governors of the World Bank and the IMF on the Transfer of Re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가 설립되었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3개년 중기 프로그램인 확대기구(Extended Facility)를 설립하였다. 한편 섬유에 관한 국제무역 협정인 국제 섬유협정(Multifibre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 1975년 : OECD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의 고조 -

5월에 개최된 OECD 각료위원회는 특별히 남북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각료위원회는 개도국과의 관계에 대한 OECD 선언(OECD Declaration on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에서 각 국은 개도국과의 대화추진을 결의하고,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구축을 요구하는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선별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새롭고 건설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DAC 회원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관계에 관한 특별 고위그룹(Ad hoc High-Level Group on Economic Relation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을 설치하였다. 동 그룹은 개발원조국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와 제 7차 특별회기의 준비를 위해 많은 논의를 가졌다.

OECD는 상품에 관한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on Commodities)을 설치하였다. DAC는 최빈개도국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긴급상황 및 장기과제를 검토하였다.

DAC는 여성 처우문제에서 분기점이 된 UN국제여성의 해(UN International Women's Year)를 맞이하여 여성을 개발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UN사회개발 및 인도주의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인 Mrs. Sipila가 참석하였다.

DAC는 원조관리절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DAC는 또한 Copenhagen-Bakkere에서 북유럽국가들의 공동후원으로 개도국에서의 프로젝트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핀란드가 DAC에 가입하였다.

파리의 국제경제협력회의(Conference o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IEC)는 남북으로부터 27개국(EEC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975년 10월부터 1977년 6월까지 "국제간의 대화 강화(intensified international dialogue)"를 실시하였다. UN총회 제7차 특별회기는 개발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멕시코에서 개최된 국제 여성의 해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Women's Year)는 국제 여성의 해의 목표실행을 위해 세계 행동계획(World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UN총회는 1976-1986년을 UN여성개발을 위한 10년 : 평등, 개발 및 평화(UN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로 선포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들(현재는 독립국가연합국가들을 포함)간에 최초의 Lome 협정(Lome Convention)이 체결되었다. '동협정은 제4차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로부터 얻는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Stabex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EEC는 동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 1976년 -

DAC는 “불이익을 받는 국가들(more disadvantaged countries)”의 빈곤계층에 대한 원조지원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UNDP의 금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UNDP 조정관인 Bradford Morse와 회동하였으며, 식량과 농업문제에 주목하고 처음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대외재원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DAC 의장인 Maurice Williams의 발기에 의해 사하라 클럽(Club du Sahel)이 창설되어 3월에 Dakar에서 창립회의를 가졌다. OECD는 동 클럽이 사하라 주변 국가들 및 동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갖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간의 협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제안으로 OECD는 “미래를 바라보며(Facing the Future)”라는 미래 예측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동 보고서는 1979년에 발간되었다.

개발원조국(Development Assistance Directorate: DAD)이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보다 폭넓은 개발협력 정책과 주제에 대한 동 기구의 업무범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Jurgen Bartsch가 DAC 비회원국 관련 담당과장(Head of Unit on non-Member Countries)이 되었다. 이 부서는 DAC 비회원국, 특히 OPEC 및 CMEA 국가들의 원조노력과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CTAD IV는 통합 상품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me for Commodities)을 채택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개별품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동 프로그램의 재정적 기반으로서의 공동자금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UNCTAD IV는 개도국의 부채문제(Debt Problems of Development Countries)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공적부채에 대한 다자간 재협상의 지침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1977년 : 인간의 기본욕구(BHN)에 대한 DAC 성명 -

DAC 회원국들은 10월의 고위급회의(HLM)에서 경제성장 및 BHN 충족을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Meeting Basic Human Needs)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에서 DAC 회원국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 근대화, 기간시설의 건설, 산업화와 같은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동과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가용자원 활용의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은 성장과 형평성 모두에 기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DAC 회원국들은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한 접근은 일차적으로 복지나 자선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산소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생산성에 주안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장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일 것이다. BHN 목표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비용부담이 크므로 DAC 회원국들은 동 HLM 회

의에서 채택된 수원국 비용 지원에 관한 DAC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for Local Cost Financing)에 따라 수원국 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캐나다의 Louis Sabourin이 Paul Marc Henry의 뒤를 이어 OECD 개발센터 총재가 되었다. CIEC는 선진국의 저소득국에 대한 10억불 원조를 약속하였다. OECD 및 OPEC 국가들이 기부금의 상당부분을 출자하고, 몇몇 수원국들이 기부금을 출자하여 로마에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이 설립되었다.

일본은 Saburo Okita의 제안으로 최초의 “ODA 배증(doubling-of-ODA)” 계획에 착수하여 1977년 14억불의 원조지출을 1980년 28억불로 증액토록 계획하였다. 동 계획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여 달성되었다.

현재의 원조와 자금흐름 목표치 개념(Concepts of the Present Aid and Flow Target)에 관한 UNCTAD 정부전문가 그룹(UNCTAD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은 DAC의 개념 및 기록관행의 효용성을 인정하였으나, DAC 및 UN의 개도국 목록이 포괄하는 지역분포에 각각 차이가 있는 데 주목하였다.

- 1978년 -

DAC는 회원국 ODA 프로그램의 평균 증여율 목표치를 1972년에 설정된 84%에서 86%로 높이도록 하는 “원조 조건에 관한 제안(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빈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증여율을 제공토록 하였다.

DAC는 농촌개발 원조를 포함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재검토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f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서 1인당 GNP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로 차입국을 차등화 하여 수출신용 지원에 대한 최저이자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OECD는 유럽위원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와 공동으로 개발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DAC는 최초로 아랍/OPEC 원조기관들(Abu Dhabi 기금, 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Islamic Development Bank, Kuwait Fund, OPEC Special Fund, Saudi Fund)과의 비공식 공동 회의를 개최하였다.

DAC는 또한 OECD 과학기술정책 개발센터 위원회(OECD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Center)와 공동으로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을 후원하였다.

DCD는 남북간 대화에 필요한 분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 정책개념 및 분석반(Policy Concepts and Analysis Unit)을 창설하였다. 동 분석반은 원조심사 회의 일정이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점차 변경되어 업무 및 기타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DCD 인력을 재배치하여 설립되었다.

DCD의 통계과(Reporting Systems Division)는 Virtual Data Base System이라는 DCD 전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외부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외무부내에 개발협력국(Depart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설립하였다. UNCTAD 무역개발이사회(UNCTAD Trade and Development Board)의 장관급 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은 빈곤국에 대한 미지불 ODA 차관에 대한 “소급조건 적용(Retroactive Terms Adjustment: RTA)”을 고려키로 합의하였다.

세계은행은 최초로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빈곤국들의 문제 및 전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점차 성장과 빈곤완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1979년 -

1월에 John P.Lewis가 DAC 의장이 되었다. 동 인은 USAID 인도지부장 및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 및 국제관계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DAC는 개발협력 금융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새로운 중요요소로 도입하는 현지금융 안내지침(Guidelines on Local and Recurrent Cost Financing)을 채택하였다.

DAC는 원조실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roving Aid Implementation)의 채택에 앞서 DAC 원조기관들의 원조절차에 대한 심층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1981년에 원조절차 개요(Compendium of Aid Procedures)로 발간되었다. DAC는 또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공적기관과 非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제봉사단체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ICVA)와 회동하였다.

DAC는 FAO 및 세계식량위원회(World Food Council)와 함께 식량 및 농업개발 원조에 대하여 검토 - 이는 이전에 DAC가 실시한 작업의 후속 작업 - 하고, 국별 식량전략 및 식량정책 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OECD는 제조업 생산 및 무역에 관한 신흥공업국의 영향(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NIC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을 발간하였으며, 남북경제문제그룹(Group on North-South Economic Issues)을 설립하여 이전의 남북그룹(North-South Group)을 승계하였다.

DAC의 준비작업 이후, 사무총장 Lennep은 양자 및 다자간 개발금융기관들과 함께 민간은행들이 개도국 투자에 대하여 협조융자(cofinancing)를 한층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집트의 Sadat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Begin 수상간에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미국의 Carter 대통령 중재하에 체결되었다. 미국은 양국에 동등한 규모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동 협정을 지원하였다.

- 1980년 : 원조효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 -

DAC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원조실시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공동심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기적인 원조효과 평가를 강화하였다.

1979년 10월에 개최되었던 DAC HLM의 훈령에 따라 원조효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었다. 1980년 의장 보고서(Chairman's Report)에 "중요한, 그러나 놓치기 쉬운 원조의 효과(important but elusive issue of aid effectiveness)"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동 보고서는 "원조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산출하기가 어려움"을 강조하고, 학습경험을 강조하였다. HLM은 원조평가그룹(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DAC는 회원국들간에 에너지 개발 원조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독일 H.Dehn의 주재 하에 에너지그룹(Group of Energy Correspondents)을 설립하였다. 북유럽국가 및 캐나다, 독일의 주창으로 DAC는 다자간 개발기구들의 금융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DAC는 개도국 마약 생산지역에서의 작물대체 생산 지원을 위한 논의를 개최하였다.

다자간 기구들에 대한 기부금을 실제지출일 대신 수표발행일 또는 기탁일 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다자간 기구들에 대한 원조규모 보고에 있어서 불안정을 야기하였으나, 다시 실제지출일 기준 보고로 돌아가

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핀란드는 1980년대 말까지 ODA/GNP비율 0.7% 목표치 달성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핀란드 원조의 급속한 확대로 이어졌다. 일본의 주장으로 중국이 DAC의 개도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OECD는 PLO가 읍저버 지위를 갖게 해달라는 요구로 야기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세계은행/IMF 연차회의(Annual Meeting of World Bank/IMF)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의 Jacob Myerson과 프랑스의 Paul Lemerle가 OECD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으로 임명되었다.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 제작된 "대 개도국 자금흐름의 지리적 배분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의 초판을 발간하였다. 이는 OECD에서 사진식자 체계로 나온 최초의 발간물이다.

국제개발문제에 대한 독자적 위원회인 브란트위원회(Brandt Commission)가 "남북관계: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North-South: A Programme for Surviva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 창설은 세계은행 총재인 Robert S. McNamara에 의해 1977년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동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Göran Ohlin이, 사무국장은 Dragoslav Avramovic이 맡았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변화를 지원하는 구

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SAL) 제도를 도입하였다.

**- 1981년 : 상호의존성 및 개도국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고조 -**

“포괄적 교섭(global negotiation)”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남북그룹(North-South Group)은 1981-82년중 DCD가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 금융의 상호의존성, 교역, 식량안보, 상품, 인구, 기술 및 환경을 다룬 일련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상호의존성”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에 착수하였다.

OECD내 구성된 특별회기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ECSS)는 현 경제 상황에서의 국제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 과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여기서는 남북문제를 DCD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틀 안에서 바라보았다.

OECD 각료급회의는 DCD가 초안을 작성한 “상호의존성과 다양성의 관계에서 바라본 개도국과의 관계(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a Context of Interdependence and Diversity)”라는 사무국 보고서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남북을 대표하는 22명의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의 Cancun 정상회의는 “협력과 개발”에 관한 특별 정상회의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관한 “포괄적 교섭(global negotiation)”을 가지려는 개도국

공동노력의 절정이자 마지막을 알리는 모임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포괄적 교섭”에서 점차 개별 개도국과 원조공여국간의 특정국가 정책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다.

Cancun 정상회의에 앞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미국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국제무역, 자유시장 및 민간투자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OECD 사무총장 Lennep은 Rotterdam 대학에서 Erasmus 강의 를 실시하였다. 이 강의는 1982년 3월, ‘The World Economy’라는 학술지에 “시장의 역할에 보다 더 의존하는 남북상호 관심의 증가(North-South Mutual Interests in Greater Reliance on Market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DAC는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원조정책 검토회의 및 통계보고에서 이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로 결의 하였다. DAC는 UN난민고등판무관실과 회동하여 개도국의 난민통합에 초점을 둔 난민과 개발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DAC는 CMEA 국가들에 의한 원조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원조평가그룹(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과 여성개발에 관한 통신인 그룹(Correspondents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을 설립하였다.

프랑스는 ODA/GNP 비율 0.7% 목표치 달성 의향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UN회의(UN Conference

on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는 나이로비 행동 계획(Nairobi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파리에서 개최된 최빈국에 관한 UN회의(UN Conference on the Least-Developed Countries)는 최빈국(LLDCs)에 대한 원조를 GNP 대비 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for the 1980s fo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을 채택하였다.

세계은행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가속화된 개발: 행동의제(Accelerat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n Agenda for Action)”(일명 Berg보고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여기서는 정책부재와 제도적 취약성 등을 제시하고 대규모의 정책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였다.

세계은행이 최초로 중국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세계은행과 IDA는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고등교육 개발을 위한 2억불 차관을 승인하였다.

- 1982년 : 부채위기 및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 고조 -

1월부터 Rutherford(Rud) Poats가 DAC 의장직을 맡았다. 동인은 카터 미대통령의 백악관 직원 및 국가안보위원회에 대한 고문,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부총재 및 총재대행, USAID의 부청장(Deputy Administrator)을 역임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후 언론인으로 동경에서 활약하면서 일본의 재건(reconstruction) 문제를 다룬바 있다.

개도국들은 심각한 부채상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의 과다차입 및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에 기인하며, 또 한편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유가파동, OECD 국가들의 경제안정화 정책에 의한 국제시장에서의 실질이자율의 가파른 상승 및 수출로부터의 수익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1982년 8월 멕시코가 부채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뒤이어 브라질 및 여타 국가들이 부채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발표) 촉발된 심각한 금융위기는 각 국 정부, 국제금융기관 및 은행들의 협력에 의해 진정되었다. 이는 개도국에 의한 정책개혁 및 구조조정의 긴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OECD 사무총장 Lennep은 1982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남북 원탁회의(North-South Roundtable)에서 남북관계와 새로운 현실(North-South Relations and New Realities)에 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여기서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OECD 경제정책의 환경이 1970년대와는 다르게 변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조평가에 관한 통신원그룹(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은 HLM에 원조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DAC는 동 그룹을 원조평가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으로 격상하였다.

DAC의 HLM은 현존하는 서비스 및 기관 및 강화를 위한 원조지침(Guidelines on Aid for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of Existing Services and Facilities)을 승인하였다.

DAC는 UN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대표들의 참석 하에 원조와 환경보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도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석 하에 관개에 대한 원조 워크샵(Workshop on Aid to Irrigation)을 개최하였다.

한편, DCD는 개도국의 대외부채에 대한 최초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행정비용 보고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완료하고 동 비용을 ODA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난민관련 지출을 ODA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핀란드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주장으로 5월에 헬싱키에서 개최된 개발위원회는 양허적 성격의 자금 규모, 원조의 질 및 효과적 사용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양허적 성격의 자금흐름에 관한 특별작업반(Task Force on Concessional Flows)을 설치하였다.

- 1983년 -

DAC의 HLM은 “각 수원국 차원에서의 조정기능 향상(Improved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을 통한 개발협력의 효과 증진을 고려하고, DAC 여성개발에 관한 통신원그룹(DAC Correspondents'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이 개발한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지원을 위한 원조기관안내지침(Guiding Principles to Aid Agencies for Supporting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DAC는 Bob Ainscow의 책임 하에 DAC의 개발원조재정실무반이 개발한 수출신용과 기타 시장자금(혼합여신)과 관련한 원조

활용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the Use of Aid in Association with Export Credits and other Market Funds(Mixed Credits))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DAC 회원국들은 교역과 원조 왜곡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혼합융자(associated financing)가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목표들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무역경쟁에 부합한다고 확인하였다.

DCD의 조사보고서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및 남북관계 발전(Worl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Evolving North-South Relationship)”이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남북경제문제에 관한 OECD 그룹(OECD Group on North-South Economic Issues)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개도국의 다양성과 시장지향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장기 구조적 관점을 취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각기 다른 부존자원과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 간의 교역, 금융, 투자 및 기술의 상호교환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생산성과 실질소득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보고서는 “세계경제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저개발과 빈곤의 대중화라는 뿌리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기본적인 경직성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필요성을 넘어 세계경제에서 개도국들이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들의 역량을 개발하며, 지구촌 빈곤지역의 가속화된 개발을 제공하는 개발협력에 지속적이고도 발전적인 접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elgrade에서 UNCTAD IV가 개최되었다. 캐나다의 Larry Smith 대사가 의장을 맡은 B그룹의 OECD 국가들은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의제라기보다는 정책대화의 기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총재와 OECD 사무총장간 민간 및 공공 청구권(private and official claims)에 대한 비밀자료 교환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공적으로 보장된 은행청구권(officially-guaranteed bank claims)의 확인 및 일련의 OECD/BIS 공동 간행물인 “개별 채무국에 대한 은행 및 교역관련 비은행 외부청구권(Bank and Trade-Related Non-Bank External Claims on Individual Borrowing Countries and Territories)”의 발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DCD는 헬싱키에서 개최된 양허적 원조에 대한 개발위원회 특별작업반(Development Committee Task Force on Concessional Assistance) 회의에 참석하였다. “개도국의 대외 부채(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라는 DCD의 연례 조사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되었다.

노르웨이의 Just Faaland가 Louis Sabourin 후임으로 개발센터 총재가 되었다.

- 1984년 : DAC의 원조조정 및 정책기조
원조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 달성 -

1984년에는 원조조정 및 정책기조 원조의 향상을 증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본 바, 독일의 Kohler 정무장관에 의해 HLM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세계은행이 자문그룹들의 수를 확대하고, 이들 자문그룹들의 원조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원조조정을 위해 수원국과의 협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세계은행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DAC 회원국들은 또한 UNDP의 Bradford Morse 총재가 최빈국들을 위한 원탁회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환영하였다. 수원국 및 분야별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협정체결에 관심이 증대되었다. DAC 회원국들은 그들의 프로그램과 관행이 수원국의 필요에 대응(responsiveness)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을 위한 추가 외부 프로그램 원조를 실시할 긴요성을 감안하여 세계은행이 원조국들의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는 제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일본이 세계 제2위의 ODA 원조국이 되었다.

원조평가에 대한 DAC 전문가그룹(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은 “원조평가로부터 얻은 경험적 교훈(Lessons of Experience Emerging from Aid Evaluation)”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대부분 DAC 전문가그룹의 의장인 영국의 Basil Cracknell의 작업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원조정책 및 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분야를 설명하였다.

1982년 및 1983년의 수치들과 함께 OECD/국제결제은행(BIS)

공동자료 및 기타 자료(Creditor Reporting System/CRS, DRS, DAC)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연례보고서인 “OECD 대외부채 통계(OECD External Debt Statistics)”가 최초로 발간되었다.

최초로 국제대외부채통계실무반(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xternal Debt Statistics)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실무반은 OECD, 국제결제은행(BIS), Berne Union, IMF, 세계은행으로 구성되었다. 호주의 제안으로 개도국의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경비등 암묵적 비용(imputed costs)을 ODA에 포함하자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DCD는 “원조는 효과가 있는가?(Does Aid Work?)”라는 주제에 대한 개발위원회 특별조사반(Development Committee Task Force)의 작업에 참여하였다. (6월에 베니스에서 세미나 개최)

여성개발에 관한 통신원그룹은 4월에 여성개발에 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으로 개편되었으며, 의장은 네덜란드의 Jose van Hussen이 맡았다.

OECD 사무총장 Emile van Lennep은 1984년 4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에 관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n Europe's Role in North-South)에서 "국제경제개혁: 개념과 실제(International Economic Reform: Concepts and Realities)"라는 제하로 연설하였다. 동 연설에서 그는 개발과정의 핵심적 요소는 국제경제개혁이라기보다는 개도국 자신들의 정책과 OECD의 건전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재무부 재무국 상급재무관(Conseiller financier in the Direction du Tresor of the French Ministry of Finance)이 DAC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9월에 Jean-Claude Paye가 Emile van Lennep의 뒤를 이어 OECD 사무총장직을 승계하였다.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국제인구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는 1974년 Bucharest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인구 행동계획(World Population Plan of Action)을 재확인하고 강화하였다.

세계은행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지속개발을 향하여 - 공동 행동계획(Toward Sustain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 A Joint Program of Action)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지속개발은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 양자간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조화롭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

- 1985년 : 개발협력 25년 -

DAC 25주년을 맞이하여, DAC는 개발협력 25년(Twenty-Five Yea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1985년 DAC 의장 연례보고서(DAC Chairman's Annual Report)는 상기 주제에 맞추어졌다. 동 보고서는 5명의 DAC 역대 의장들이 개발협력의 발전 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DAC의 역할에 대한 일련의 설명을 수록하였다. 동 보고서는 주요 개발협력의 규모 및 정책의 발전과정을 회고하였다. 동 보고서는 원조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원조의 효과에 대하여 동 보고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최근 오히려 퇴보가 있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지난 25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개도국들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가는 것과 병행하여 원조는 이러한 성장에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ODA가 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국가들에 집중되는 것은 ODA의 성격이며, ODA는 투자를 위한 금융업(investment banking)이 아니다. 따라서, ODA는 잠재적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발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원조의 상당부분은 자연재해나 난민유입,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많은 주요 수원국들이 급성장 국가군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사회개발을 가속화하고, 적어도 급속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원조로부터 상당부분 도움을 받았다.

또한 동 보고서는 원조경험으로부터 각 분야의 원조원칙에 대한 향후 DAC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운영상의 교훈들을 제시하였다.

① 중요한 경험상의 교훈중의 하나는 원조는 원조가 사용되고 있는 곳의 정책, 경제 및 행정적 환경이 효과적인 만큼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성공적인 원조활용은 이러한 교훈의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과 개발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운영상의 교훈은 원조가 효과적이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원조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사실중의 하나는 원조실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며, 원조로 제공되는 프로젝트의 성공 및 자생력은 프로젝트 심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선정을 보다 엄격히 하며,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은 유연하게 수립하며, 결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③ 수원국 시행기관의 참여를 확보하고 목표 대상 그룹이 프로젝트의 선정, 계획수립 및 실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④ 개도국들의 경제·사회 복지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젝트의 선정,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분야 및 국가 차원의 노력과 정책의 지원에도 원조하여야 한다.

⑤ 정책 및 프로그램 대화에 있어서 원조공여국의 충고가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각 개도국의 다양한 경제 및 기타 제약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하여야 하고, 비중있는 모든 원조공여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최소한 인정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원조공여국의 서로 상충되는

충고는 비생산적이다.

⑥ 수원국 정부와의 국제원조 조정 협약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공감대에 기초하여 개별적이고도 운영상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단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참가자들은 이 우선순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관심을 끄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원조공여국들의 경쟁은 문제로 남아 있다. 원조공여국들간에, 그리고 원조공여국들과 수원국들간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활동과 관련한 충분하고도 솔직한 정보교류는 성공적인 원조조정 노력 및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활용에 필수적이다. 몇몇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행정적 제약요건이나 원조공여국들이 정치적, 또는 상업적 고려하에 공개를 회피함에 따라 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각료위원회(OECD Ministerial Council)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원조차관(tied aid credits) 및 혼합융자(associated financing)의 최소 증여율(GE)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데 합의하였다.

OECD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mmittee) 및 DAC는 개발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대한 제안(Recommendation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을 채택하였다.

남북그룹(North-South Group)은 1980년대 중반 DCD가 남북관

계에 관하여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도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금융정책과 광범위한 시장규제 철폐와 같은 새로운 거시경제 및 구조정책의 틀이 의미하는 바와 개도국들이 점차 대외지향적인 수출지향의 개발전략 채택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였다.

DAC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수적인 정책개혁과 복구노력에 착수하도록 지원하고 원조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DAC는 공여국간 긴밀한 조정을 통해 아프리카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는 세계은행의 발의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DAC는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의 원조효과를 향상하자는 제안을 승인하였다. Poats 의장의 주창으로 DAC는 저소득국가에서의 민간기업분야 및 시장의 조정기능(strengthening the enterprise sector and market process)을 강화하는 원조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미국 의회의 정부운영에 관한 하원 소위원회(The House Sub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US Congress)는 DCD 국장을 초청하여 예산분담심의회(Panel on Burden-Sharing)에서 전문가적인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Haven North가 Basil Cracknell의 뒤를 이어 원조평가 전문가그룹 의장이 되었다. 동 전문가그룹은 “원조평가의 방법과 절차 - 원조공여국의 관행과 경험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아일랜드가 DAC에 가입하였다.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회의는 UN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을 검토·평가하고 2000년까지의 기간을 위한 “전향적 전략(Forward-Looking Strategy)”을 채택하였다.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은행/IMF회의는 개도국들이 가능한 조속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주요 과다 채무개도국들에 대한 채무조정 및 추가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Baker Plan”이 출범되었다.

- 1986년 : DAC의 원조조정에 관한 원칙 채택 -

1월부터 Joe Wheeler가 DAC 의장이 되었다. 동 인은 USAID 부청장,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부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DAC의 HLM은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원조와 원조조정의 의미에 관한 안내지침을 채택하였다. 후에 동 내용은 개발원조편람(Development Assistance Manual)에 포함되었다. DAC 회원국들은 원조조정에 관한 근본적 책임은 각 수원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개도국들이 세계은행, IMF 및 UNDP의 지원으로 원조조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채권 국회의, 자문그룹회의, 원탁회의 및 수원국 차원의 원조조정 약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개별적인 권고사항들이 만들어졌다. 세계은행, IMF 및 UNDP는 DAC의 원조조정 약정 개선에 관한 제안을 수용하였다.

독일의 제안으로 DAC는 수원국의 원조조정 약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단을 조직하였다. DAC는 ODA를 위한 조달방안(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승인하였다. (DAC 매뉴얼에 포함)

Wheeler 의장의 제안에 따라 1986년은 DAC 내에서 “이탈리아의 해(Year of Italy)”가 되었다. 1986년은 이탈리아가 ODA를 58% 증가함으로써 이탈리아의 ODA/GNP 비율이 DAC 평균을 상회하게 된 시기이다. 쿠웨이트에서 DAC/OPEC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다.

구조조정과 빈곤에 관한 DAC 회의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무국 보고서는 농촌과 노동집약적인 활동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정책개혁의 긍정적 영향 및 준국영회사(parastatals)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 재정 지출의 방법을 전환하는 정책개혁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OECD 위원회는 개발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의 환경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스위스의 Matthias Meyer가, 뒤이어 스웨덴의 Lars Ekengren이 개발원조재정실무반 의장이 되었다. 미국의 Kay Davies가 Jose van Hussen의 뒤를 이어 여성개발 전문가그룹 의장이 되었다. 영국의 Richard Allen이 Eugene Kerber의 뒤를 이어 통계

실무반 의장이 되었다. 네덜란드의 Louis Emmerij가 Just Faaland의 뒤를 이어 개발센터 총재가 되었다. Tsuneo Oyake가 Toshio Oshima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 특별고문이 되었다.

GATT 무역장관들이 Punta del Este에서 Uruguay Round를 출범시켰다. IMF는 저소득국의 거시경제 조정 및 구조조정, 경제성장 회복에 도움이 될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적 성격의 구조조정기금(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SAF)을 설치하였다. 동 프로그램들은 IMF 및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원국 당국자들에 의해 작성된 중기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UNCTAD VII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OECD의 DCD가 초안을 마련하고 Group B(의장 노르웨이 Haslik 대사)에서 사용된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가정책들을 국제적인 주제들과 아울러 UNCTAD의 필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1987년 -

DAC는 다자간원조(multilateral aid)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다자간 원조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기구들에 대한 공여국들의 평가는 양자간 원조보다 다자간 원조가 더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다자기구들이 명시된 임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더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몇몇 기구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기구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운영능력과 프로젝트의 질적인 측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② 점증하는 개발협력의 복잡성과 1990년대 개발협력과제와 함께 개발협력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강력한 다자기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세계은행, IMF, UNDP는 원조 조정과 원조정책면에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도 개별 국가수준에서 수원국 정부에 조언을 할 경우에는 UN의 분야별 전문기구들을 보다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UNDP를 UN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자금지원 기구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UN프로그램 전반에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UNDP가 UN의 중심적인 자금지원 기구로 활동하는 것이다.

④ 분야별 UN기구들은 개별 수원국에 대하여 보다 전략적 접근차원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shopping list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개별 프로젝트에 입각하여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향상
- 공공투자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하에 프로그램 개발
- 제도구축 지원

⑤ 아직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심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개발

은행들도 세계은행, IMF와 함께 협조하면서 정책에 입각한 프로그램 차관(lending)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

⑥ 다자간 개발은행들은 초기 차관으로부터 주요 상환금을 회수하면서 차관기관으로서 성숙단계에 돌입하였다. 새로운 대부는 실질적이면서 점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종전의 일반적 재원으로부터의 전체 純금융이전은 대부분 줄어 들었는 바,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단순히 자금 흐름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들 기관들의 개별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자금집행과 관련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일 것이다.

DAC는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하의 수출신용과 조건부원조에 관한 투명성과 원칙을 강화하는 규정 채택과 아울러 혼합융자 및 조건부·부분 非조건부 ODA에 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채택하였다.

원조평가 전문가그룹은 개도국들과 함께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Abidjan(1990), Kuala Lumpur(1992), Quito(1993)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스웨덴의 요청으로 국내에서 지불된 이자보조액(interest subsidy)이 ODA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ODA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제안으로 DAC는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Project Appraisal)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Dakar에서 개최된 DAC/OPEC회의는 세네갈 하천 프로젝트(Senegal River Project)와 관련한 프로젝트 검토, 원조공여국간의 조정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북그룹(North-South Group)은 개도국내에서 OECD의 주요 경제적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Commission)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위원회는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되었다.

- 1988년 : DAC 프로젝트 심사원칙 채택 -

DAC는 상당한 분석작업 및 협의를 거친 후 고위급회의에서 프로젝트 발굴 단계부터 준비, 심사, 선정 및 기획, 모니터링·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심사원칙을 채택하였다.

DCD는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DCD는 “자발적 개발원조 : NGO의 역할(Voluntary Aid for Development :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을 발간하였다.

DCD는 “DAC 회원국의 프로젝트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비교조사(A Comparative survey of DAC Members' Project Appraisal Criteria and Procedures)”를 발간하였다.

Takashi Koezuka(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다자업무과장)가 DAC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Klaus Winkel(덴마크)이 Haven North 후임으로 원조평가 전문가반 의장직을 승계하였다. Ulla Lehmann Nielsen(덴마크)이 Kay Davies 후임으로 WID 전문가반 의장직을 승계하였다. Barrie Ireton(영국)이 Lars Ekengren 후임으로 개발원조 재정실무반 의장직을 승계하였다.

대외채무 통계 국제실무반은 “대외채무 : 정의, 통계범위 및 방법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DCD는 브라질,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인도에 대한 주요 분석 및 초안 작업에 기초하여 OECD 및 주요 개발경제에 관한 “Oyake Report”를 완성하였다.

토론토 경제서미트에서 선진 7개국 지도자들은 공적 채권자(official creditors)들이 보통 만기가 더 짧은 양허적 이자율, 상환기간이 더 긴 상업적 이자율, 정리기간(consolidation period) 동안 채무상환 의무의 부분적 해지, 또는 이러한 선택사항의 조합(토론토 조항) 중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프리카 저소득국의 공적 채무재조정(리스케줄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9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회의는 최빈채무국을 위한 채무구제 토론토 조항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IMF의 신규 양허적 차관기관인 확대구조조정기구(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ESAF)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IMF는 최빈 회원국 국제수지 개선 및 성장촉진을 위한 강력한 3개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계획 지원 목적의 신규 재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계은행은 정책개혁을 추진중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저소득 채무국을 위한 채무구제 및 성장지향형 수출금융 3개년 계획(1988-90)과 아프리카 특별프로그램(SPA)을 통합하였다.

다자투자보증기관(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이 발효되었다. 대만은 국제경제 협력개발기금(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Fund)을 설립하였다.

- 1989년 : '90년대 개발협력 및 참여적 개발과 환경의 중요성 부각 -

1989년 DAC의 주요 과제는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것이다. 동 작업은 1985년 개발협력 25주년의 회고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1988년에 착수되었다.

6월, 일본 주도의 DAC SLM과 개도국이 참여한 공동 고위급세미나에서 1990년대 개발협력을 위한 사무국 및 DAC 업무를 심사하였다. 12월, DAC 고위급회의에서 개발협력 각료 및 원조기관장들은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성명(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1990s)을 채택하였다. 이는 1989년 DAC 의장 보고서에 포함된 1990년대 개발원조의 기본 과제에 관한 종합분석 및 DAC의 핵심분야에 관한 중점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이다.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DAC 작업의 핵심적인 결론은 높은 인구성장과 가난, 영양부족, 문맹 및 환경악화와 연결되어 있는 저개발의 악순환은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증진, 둘째,

생산과정에 모든 국민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공정한 이익배분의 보장, 셋째,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많은 개도국들의 인구성장을 둔화 등의 목표와 요건을 통합하는 경제개발 전략과 정책을 통해서만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적 개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DAC의 원조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주요 개념이다. 참여적 개발의 개념은 개발과정에 경제적·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이 역동적인 생산부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 활동과 민간기업 및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며,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전 국민을 적극적인 삶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개도국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다. 과도한 규제, 국가권력 및 민간독점에 의해 짓눌린 경제로부터 국민의 생산력이 촉진되고 합법적인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 체계, 개인의 권리 및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은 현재 보다 폭넓게 평가되고 있다.
- 참여적 개발은 보다 민주적이며 개도국의 기관 및 자치를 위한 역할 강화, 효과적이며 접근가능한 법률체계, 시장경쟁력, 역동적인 민간 기업을 포함한 인권의 존중을 함의한다.
- 보다 개방된 경쟁시스템은 효과적인 자원의 이용, 성장 및 고용을 개선시키고,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창출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는 1990년대 개발협력의 핵심 과제이다. “주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개도국의 자원기반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점차 다루기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와 미래의 개발 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 개도국의 가난은 환경파괴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세대와 차세대에게 혜택을 위한 환경자원기반 보호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한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광범위한 개발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이용을 보장할 정책과 실천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1990년대 개발협력 보고서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조치와 공여국의 원조활동을 연계함으로써만이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인 개발원조 노력은 보다 확대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개별 공여국이 어떤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자신의 의미있는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원조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소 전문화된 공여국의 협력확대가 필요하다. 개별 공여국의 원조프로그램 및 실제 개별 원조관계자의 기본적인 performance measure는 보다 광범위한 개발노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발목표와 공여국 정책 관심사항을 조화시키고, 각 공여국의 노력을 응집된 전체에 통합하여야 한다. 국가의 개발원조 노력이 보다 큰 국

제적 노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국민 여론에 설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DAC의 작업과 관련하여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네덜란드는 다른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증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프랑스 주도로 DAC는 개발원조 및 환경 실무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Environment)을 설치하였다. DAC는 여성과 개발에 관한 지침을 채택(DAC 매뉴얼에 포함)하였다. 동 지침은 WID 전문가반이 작성하였으며, 1983년에 DAC에 의해 채택된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원조평가 전문가반은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인 “A Compendium of Evaluation Experience”를 준비하였다. 스위스 대표단(Bo Kjellen 대사)의 주도로 DAC는 업무방식 및 체계를 재검토하고 기본적으로 회의빈도, 실무반 체계 및 간사 배치 등을 포함, 현 접근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몇몇 대표는 의장 순환보직 원칙에 동의하였다. 보고서는 비회원국 관계 실무반 위원회에서 검토·승인되었다.

이탈리아 주도로 DAC는 실험적 차원에서 특정 개도국권 지역의 일련의 원조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작업은 남아시아의 원조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이었다. DAC는 저소득국 및 원자재 생산 개도국 문제를 검토하고 광범위한 기반을 토대로 개발접근법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1989년 DAC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전체 DAC 원조의 약 20%를 점유하게 되었다. DAC 회원국은 폴란드 및 헝가리에 대한 적절한 원조지원 합의에 실패하였다. 미국의 지지를 받은 일본은 동 국가들을 위한 ODA 자금사용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기타 회원국, 특히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개도국에 원조가 집중되기를 희망하였다. 결국, 회원국들은 DCD가 OECD 심의기구 용도로 동유럽국가 지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다.(1991년 참조)

미국의 요청으로 DAC 전 통계를 검토하게 되었다. DAC 및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통계에 여성개발(WID) 보고가 도입되었다. DAC 회원국들은 1989년 6월 베이징 사태이후 중국의 원조활동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교류를 보류하였다.

Oyake 보고서에 이어 “세계경제 개발의 지속가능 : 국가정책 및 국제협력”이라는 제하의 비공식 OECD 세미나에서는 OECD 국가 관계자들을 소집, 비회원국 아시아 경제권(홍콩, 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을 “역동적인 아시아 경제(Dynamic Asian Economies)”로 선정하였다.

OECD 상주대표급의 확대 토론 후, 남북그룹을 본질적인 개도국관련 정책 이슈를 분석하는 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합의도출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남북그룹은 폐지되었다.

Breitenstein 보고서(개발센터 자문위원회 의장, 핀란드 대사)는 개발센터와 OECD의 보다 긴밀한 업무관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ECO)는 공공관리위원회(Public Management Committee: PUMA)로 개편되었다. 아쓰시 하타케나카씨(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부국장)는 DAC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냉전과 유럽분단의 종식을 알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개방은 개발협력 및 개도국에 관한 간접적 영향과 함께 중·동부 유럽에서 의미심장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오존층 고갈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 1990년 -

DAC 고위급회의는 광범위한 참여적 개발과 상호 연계된 환경, 인구 및 개발 과제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의 원조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DCD는 모두에 정책지침을 제시하고 회원국 및 사무국의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의 결과를 구체화 한 “개도국 민간기업의 진흥(Promoting Private Enterprise in Developing Countries)”을 발간하였다. DAC는 “인구와 개발(Population and Development)”의 발행을 발표하고 인구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는 상급회의 및 고위급회의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서 DAC 매뉴얼에 포함되었다.

개도국의 기술적 변화관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1년 발행)가 실시되었다. DAC는 남미의 원조정책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논의하였다. (1992년 의장 보고서 참조)

프로그램 원조 및 기술협력 원칙에 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DAC는 세계은행 및 IMF 지원을 포함, 개도국에 대한 걸프위기의 영향(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국제사회의 반응)과 원조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노르웨이는 비공식 DAC 회의에서 인권분쟁으로 야기된 케냐에 대하여 개발협력을 중단할 것을 보고하였다.

특별 재정지원을 통해 대표단은 원조심사 준비와 관련 사무국이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착수하도록 하였다. Gun-Britt Andersson 스위스 외무부 국제개발협력국 차관보가 3대 DAC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특히 ODA/GNP 비율이 높은 국가를 부의장에 임명함으로써 간사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DAC의 작업 방식 및 체계 검토에 관한 1990년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중·동부 유럽 및 舊소련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과 자문을 제공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정책 대화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Salvatore Zecchini 사무국 부총장을 의장으로 한 유럽 시장경제이행 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European Economies in Transition: CCEET)를 설치하였다. 원조관리과는 DCD의 운영문제를 검토하고 조직체계 변화를 도모하였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UN최빈국회의는 최빈국의 장기 국가경제사회 목표에 부합되게 1990년대 개발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정책을 도출하였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었다. 콜 독일수상은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원에 대한 강력한 우선순위 유지 및 東유럽의 정치·경제적 안정화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스칸디나비아의 개발협력 장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강력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11월, 세계은행, UNDP, UNEP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3개년 파이롯트 프로젝트로서 25개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 구성된 지구환경기구(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제한, 국제 물보호, 생물다양성 및 오존층 보존 등 4개 중점분야에 관한 개도국의 재정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 1991년 : 신규 조건부원조(tied aid) 규정 및

DAC의 환경우선 원칙 -

1월 취임한 Alexander Ray Love DAC의장은 USAID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직업장관 경력소유자로서 나이로비 사무소장, 아프리카 부행정관보(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등을 역임하였다.

9월 DAC 고위급회의는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모든 범위에서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책일관성 유지에 관한 원조기관의 역할(분석작업은 1992년 DAC 의장보고서 2장에 수록)에 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프랑스 주도에 의한 DCD와 개발센터의 통합을 포함한 토론이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험난한 논의 끝에 조건부원조 및 혼합용자

(associated financing)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합의되었다. 미국 주도 하에 상업적 이익("spoiled market"에서 통신, 운수 및 에너지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부문의 "predatory practices")을 얻기 위한 양허적 조건부원조 사용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DAC는 참여자의 원조관련 모든 협정을 통합하고 개발원조 조항을 추가한 공적 수출신용에 관한 협약(헬싱키 패키지)을 채택하였다(1992년 공식 채택, DAC 매뉴얼에 포함). 동 협약의 새로운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고중소득국의 조건부원조 및 신용 사용 금지
- 정상가격 정책하에서 상업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부원조 및 신용 사용 금지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의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심사 체크리스트 제공
- 상호 프로젝트 심사 및 대형 사업에 대한 국제 경쟁입찰 이용에 관한 특별조항 규정
- 사전통보, 투명성 및 협의, 회원국의 이행에 관한 검토와 관련 procedural arrangement 정의

DAC는 미국의 이집트 주요 군사 채무해제에 의해 촉발된 非 ODA성 채무해제 리코딩 문제에 직면하였다(1992년 참조). DAC는 소규모 기업 지원에 관해 논의하였다. DAC는 대표단과 지역 전문가와의 바누아투 비공식 사전준비 세미나에 앞서서 남태평양 원조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OECD는 프랑스 및 독일 주도로 12월 개발환경장관 회의를 개

최하였다. 사전협의를 위해 DCD 및 환경간부회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환경 및 개발협력 장관들은 DAC의 개발원조 및 환경 실무반에 의해 작성된 환경원조 원칙을 승인하고 정책 성명을 채택하였다.

- 국별 환경조사 및 전략 실시
-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 개발 프로젝트의 비의도적 대체(involuntary displacement) 및 재정비에 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12월, DAC 고위급회의는 정책적 일관성에 관해 논의(1992년 의장 보고서에 작업결과 게재)하고, 다음 원칙을 채택하였다.

- 프로그램 원조 원칙
- 기술협력에 관한 새로운 방향
- 원조평가 원칙(모두 DAC 매뉴얼에 포함)

포르투갈 및 스페인이 DAC에 가입하였다. 기타 Non-DAC 국가에게 점차 고위급회의 참여를 포함, DAC 작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중·동부 유럽국가(CEEC) (1992년 신흥독립국가(NIS)로 확대)에 대한 자금흐름에 관해 보고하였다.

Jean Quesnel(캐나다)은 Klaus Winkel 후임으로 원조평가전문가반 의장이 되었다. Rosalind Eyben은 Bjorg Leite 후임으로 WID 전문가반 의장이 되었다.

핀란드는 ODA/GNP 비율 0.7%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그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및 네덜란드가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의 기술협력 및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발족되었다.

91년 12월 EEC 정부 대표에 의해 승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은 다른 EEC 정책과 동등하게 개발협력에 관한 장을 포함하였다. 주요 특징은 일반적인 정책과 국가원조정책의 보완성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과 위원회의 강력한 조정 의무, 국제 포럼, 모든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정책간의 일관성에 대한 감시, 빈곤퇴치 및 최빈국에 중점을 둔 경제사회개발 등 EEC 원조의 주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 개도국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인권, 민주주의 및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의 증진과 유지 등이다.

1990-91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1990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OECD 각료들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를 환영하고, 이러한 발전은 최근 많은 개도국의 발전과 함께 OECD 국가 공통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향한 추세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이어서 대부분의 남미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중적 압력이 확산되었다. EC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및 미국을 포함한 DAC 회원국들은 인권, 민주주의 및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1991년 6월 OECD 각료이사회 코뮤니케 및 12월 DAC 중견급 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는 OECD 국가들이 인권의 증진, 민주화,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기관 및 법치, 과감한 군비 억제 등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케냐 자문그룹회의 및 대부분의 자문그룹들은 민주화 및 인권에 관한 공여국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1989년 DAC의 1990년대 개발협력 정책성명은 “개방되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정치체제, 개인의 권리와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간의 필수적인 연계”에 관하여 강조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 1992년 : 올바른 통치와 DAC 매뉴얼 -

DAC 국가는 DAC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수행에 관한 세부 조사를 검토하면서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에 관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독일 및 일본은 특히 개도국의 과감한 군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 부문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위한 공통의 틀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DAC SLM은 후기 냉전상황에서의 세계 및 특정 지역에 관한 개발협력 과제를 검토하였다. 핀란드는 ODA 개념에 개발, 인도주의 및 환경 목적의 양허적 자금흐름의 광의의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DAC는 민영화, 교육, 지역협력 및 도시 개발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DAC는 군사채무 및 기타 非ODA 채무의 채무면제 리코딩에 관한 사무국 제안에 관해 SLM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동 논의는 ODA에 이집트 군사외채 10-20억불의 연간분할불입분을 포

함시키자는 미국의 의도로 촉발됨).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정부간 그룹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하는 사건에 관해 비공식 DAC 회의에서 보고하였다.

DAC는 통계보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제안을 승인하였다. 사무국 대표단은 DAC통계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금흐름 보고에 착수하였다.

DAC 회원국은 고위급회의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원조의 타당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하였다.

- ODA 기본 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빈곤을 경감시키며 생존 가능한 경제 및 사회 구축, 세계경제에 유익한 참여능력을 창출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 원조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구 환경 보호, 마약 및 주요 질병의 퇴치, 평화구축 및 개방된 세계경제체제에 기여 등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전통적인 ODA 외에 모든 국제 원조자금의 흐름의 투명성과 국제적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DAC는 ODA의 정의 및 개도국 및 지역, 기타 수원국에 관한 DAC 리스트의 작성과 1993년 고위급회의 당시 광의의 원조개념 도입에 대한 유용성 문제 제기와 같은 진행중인 관련문제 검토 완료를 요청한다.
- DAC 리스트 개정 중간단계로서 회원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추가하고 3년간의 과도기 이후 현

재 개도국 리스트에 있는 바하마,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및 UAE 등 많은 국가들을 제외하기로 합의한다. 현재는 사전 준비단계에 있는데 DAC는 개도국 및 지역 리스트에 포함 또는 제외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DAC는 인권존중, 민주화 진전 및 과감한 군비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92년 고위급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은 최대 금기사항중의 하나인 부패(corruption)에 역점을 두었다. “부패척결 및 재정적 책임성을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의 필수 요소이다. 부패는 정치경제 생활의 전체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 원조 장관 및 기관장들은 적절한 통제조치가 거대한 원조자금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원조뿐만 아니라 국내 재원의 오용을 일으키고 공여국의 원조노력 평가를 훼손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책임성 강화지원 조치 강구 및 효과적인 反부패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또한 원조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도국의 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DAC는 주요 원조관리 분야에 관해 과거 5~10여년간의 DAC 작업을 종합한 개발원조매뉴얼(Development Assistance Manual)을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25년간의 개발협력 검토 - 1985년 (1985 Review of Twenty-five Years of Development Co-operation)”의 운영상의 교훈과 1990년대 개발협력 정책방향과 다음 원조분야에서 채택된 원칙과 전반적인 방향을 포함하였다.

- 원조조정
- 프로젝트 심사
- 기술협력
- 프로그램원조
- 여성개발(WID)
- 환경영향평가
- 조달
- 조건부원조(tied aid)
- 인구와 개발
- 민간부문 증진
- 과학과 기술의 역할
- 원조 평가

룩셈부르크가 DAC에 가입하였다. 일본 대표단 및 USAID 컨설턴트인 Janet Tuthill의 후원으로 WID에 관해 DCD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DCD 간부회의에서 OECD 의료자문가 Dr. Henri Bourdarias는 보건분야 조사결과를 잠정 보고하였다.

OECD 사무국장은 향후 OECD의 개도국 지원방향에 대한 비공식 DCD 총회를 개최하였다. Shohei Naito(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부국장)은 Hiroshi Hashimoto에 이어 DAC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이사회는 주요 국제회의 자문그룹의장으로 Werner Reichenbaum(독일)을 임명하였다.

OECD 이사회는 프랑스 주도로 DCD와 개발센터 통합 가능성을 포함, 개발협력 조정기능 개선에 관해 논의하였다. 대표단은 Taniguchi 사무국 부국장 책임 하에 DCD, 개발센터 및 다

른 OECD 조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사무국장 제안에 동의하였다..

1월, 미국은 舊소련방 신흥독립국에 대한 원조조정 공여국회의를 요청하였다. 후속 회의는 5월 리스본에서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워싱턴 및 리스본 회의는 OECD에 NIS에 대한 기술협력, 식량원조 및 기타 긴급원조에 관한 정보를 CCEET Register를 통해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2월, Cartagena 및 Colombia에서 개최된 UNCTAD VIII는 정책경험의 교류를 통한 개도국의 국가정책수립 능력 강화 및 개발원칙과 정책에 관한 국제인식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OECD의 확실한 업무수행에 의해 고무된 제도개혁을 수반하는 UNCTAD의 새로운 방향에 합의하였다. 처음으로 OECD 회원국들은 개정된 UNCTAD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상징하는 Group B로서 보다는 개별자격으로 참여하였다.

6월,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일명 지구서밋(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Earth Summit)에는 100여명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였다. 주요 업무 이외에 다음 세기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이끌어 갈 종합계획에 합의하였다. UNCED는 또한 리우선언, 즉 非구속성 27개 원칙과 사막화 방지협정 초안을 채택하였다. 작은 섬나라 및 이동성 어족에 관한 2개의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과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등 2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의제 21은 국제적 공감대에 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지

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안하였다. 스위스가 세계은행 및 IMF 가입에 가입하였다.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후속 국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UN평화유지 및 긴급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적 구호활동을 위한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소말리아에 미국 주도 군사행동을 승인하였다.

- 1993년 : ODA 개념 및 DAC 리스트 제검토 -

DAC는 고위급회의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적 원조상황, 특히 동유럽 및 구소련국가 등 새로운 수원국의 출현과 민주적 발전, 지구 환경, 난민 및 평화유지, 개도국의 다양성 증대와 관련한 새로운 원조 필요성을 감안하여 ODA 개념 및 DAC 개도국 리스트 채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미국은 ODA 개념을 양허성에 대한 DAC 기준 및 개발 동기를 충족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총 원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몇몇 DAC 회원국들은 ODA 개념을 가난한 국가로 한정하고 기타 국가 및 목적을 위한 원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조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원조로서의 ODA 개념을 유지하고, 6월 스웨덴 상급회의에서 제안된 새로운 범지구적 원조개념(global aid concept)의 도입을 거부하였다.

DCD 및 CCEET는 CEEC 및 NIS에 대한 원조통계 수집에 관해 협력하였다. DAC 회원국 제출자료를 토대로 CEEC 및 NIS 국가 원조에 관한 첫 번째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991년

동 지역에 대한 純원조 총액은 채무말소를 포함, 75억불에 달하였으며, 최대 공여국인 독일과 미국은 총 지원액의 60%를 점유하였다. OECD 이사회는 CCEET 실무반을 설치하였다.

일본 주도로 개발센터 및 DCD는 전 세계은행 총재 Robert McNamara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도국의 군사비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DAC의 개발협력국은 민주화, 인권 존중 및 과감한 군비 축소에 관한 일반 지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조평가 전문가반은 “원조평가 전문가반의 역사, 10년의 회고 (A History of the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 a Review of Ten Years of Work)”를 DAC에 제출하였다.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DCD 및 영국 지원에 의한 이주 및 국제 협력에 관한 OECD 회의에서는 원조정의에 관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1993년 12월 고위급회의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DAC는 부의장으로 스웨덴 Gun-Britt Andersson의 후임으로 노르웨이 외무부 개발협력국장 Randi K. Bendiksen을 선임하였다. Matthias Meyer(스위스)는 Barrie Ireton 후임으로 DAC 개발원조 재정실무반장이 되었다. 스웨덴 SIDA의 Mats Segnestam은 Frits Schlingemann 후임으로 개발원조 및 환경실무반장이 되었다. Teresa Fogelberg(네덜란드)는 Roslind Eyben 후임으로 WID실무반장이 되었다. Jean Bonvin은 개발센터 총재로 지명되었다.

Bernard Wood(캐나다)는 정년 퇴임한 Helmut Führer 후임으로 개발협력국장이 되었다. Mr. Wood는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연구원, 캐나다 국제평화안보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의 Chief Executive Officer, 남북문제연구소(North-South Institute)의 Chief Executive Officer, 정부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1994년 -

USAID의 부청장 대리인 James H. Michel이 DA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 인은 USAID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담당국장, 과테말라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DAC 고위급회의(HLM)는 민간부문개발에 관한 지침(Principles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DAC는 처음으로 DAC, UNDP, 세계은행 3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술협력의 효과증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DAC는 또한 새로운 유라시아(Eurasia) 수원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외원조 원칙에 초점을 맞춘 제1차 OECD Senior Level Forum을 터키에서 개최하였다. 멕시코와 UNDP가 DAC의 옵저버가 되었다.

- 1995년 : 개발과 파트너쉽 -

DAC 고위급회의는 새로운 세계적 맥락에서의 개발파트너쉽(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의 선언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곧이어 OECD 각료급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동 선언서는 각 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자국의 원칙적인 책임성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및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integrated strategies)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동 선언서는 종합적인 개발전략의 주요 요소 가운데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인권존중(protection of human rights), 법치주의(rule of law)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DAC 고위급회의는 그 밖에 개발협력의 전략적 목표가 될 “참여적 개발과 좋은 통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s f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및 정책선언서인 “성평등: 지속적이고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하여(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DAC는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반을 가동하였다.

- 1996년 :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AC 고위급회의는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개발전략인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다. 동 개발전략은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한 경험과 결론에 근거하여, 인간중심의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 수원국 주인의식(local ownership), 세계통합 및 국제파트너십(global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에 중점을 두었다. 동 개발전략의 목적은 “개도국들과 새로운 세계적 파트너십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범지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co-ordination)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발전략은 이후 OECD 각료급회의 및 G7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각 전략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복리(economic well-being) :

- 2015년까지 절대빈곤인구 비중을 절반으로 감소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

- 2015년까지 모든 국가에 의무교육 실시
-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 성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발전
- 2015년까지 영아 및 5세미만 유아사망을 2/3 감소와 모성 사망을 3/4 감소
- 2015년까지 가능한한 신속히 적정 연령의 모든 개인이 1차 진료체계에서 생식보건서비스까지 접근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2005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 개발을 위한 국별전략을 수립, 이행함으로써 2015년까지 현재의 환경자원 감소경향을 역전

DAC 고위급회의는 선별된 수원 파트너국가들(말리가 첫번째 파트너임)에서 국제적 원조시스템의 일관성(coherence) 및 효과성(effectiveness)을 검토하는 새로운 전략에 착수하였다.

DAC는 개도국 참가자들과 "Aid Procurement Regimes, Tying Status and Value for Money"에 관한 중견급 워크숍을 가졌다.

- 1997년 : 파트너십 - 정책수립에서 이행까지 -

DAC 고위급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과 더불어 21세기 개발

전략에서 강조된 전략의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 DAC 회원국들은 개발전략의 운용 및 조정(co-ordination)의 역할 수행, 개도국을 위한 리더쉽 역할의 증진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DAC에 대해 진전상황의 정기적 보고 등을 위하여 현행의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별 기반에 근거한 현지의 수원국 리더쉽(local leadership)이 관여되도록 모든 접근법이 맞추어져야 한다.
- DAC는 저소득국가들에게 민간자본(private flows)이 들어가도록 ODA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개도국내에서 국내재원의 동원 촉진방안, 남남협력의 증진방안, DAC 회원국의 ODA 확대방안 등 개발재정 아젠다(development finance agenda)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1세기 개발전략이 공여국 주도의 개발전략이 아니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나의 공동의 구조(a common framework)를 향한 노력이 집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아가 UN산하기관, 다자간 개발은행, 신흥공여국 및 국제개발사회의 구성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현지의 수원국 리더쉽이 관여되도록 모든 접근법이 맞추어져야 한다.

DAC는 멕시코 정부의 협력하에 DAC 회원국의 고위관리들과 개발협력 프로그램 관련 국가간의 정책대화 포럼을 가졌다.

DAC는 UN, 세계은행, IMF와 공동으로 개발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s)에 관한 제1차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21세기 개발전략에서 확인된 개발목표들에 대한 개발 진행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에 관해 토론하기 위하여 공여국 대표, 수원 파트너국가들의 정책입안자 및 국제기구 통계관계자들의 이해의 장이 되었다.

DAC는 파트너십 개념(Partnership Concept)의 이행에 관한 제 1차 개발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 1998년 -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 파트너십 전략(Development Partnership Strategy)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진행과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였는 바, 다음의 양면 접근법에 중점을 두었다.

- 우리가 생각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변화한다.(local ownership, in-country co-ordination 및 donor procedures의 증진, 개발을 위한 재원을 극대화하는 빈곤감축전략, 그리고 조화로운 성취 및 필요성)
-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향상된 정책일관성을 달성한다.(원조조달의 자유화, 지속개발 및 기후변화)

- 1999년 -

Jean Claude Faure가 DA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 인은 개발 협력과 불어사용 언어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국무부 Principal Private Secretary에 있었으며, 그밖에 아프리카를 위한 세계연합(Global Coalition for Africa)의 수석고문, 협력개발 부의 개발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DAC 고위급회의는 최빈국에 대한 untying ODA에 관한 DAC 권고문 초안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그 결과, untying에 관한 권고문 초안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DAC는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비조건부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998년 DAC Mandate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ODA를 비조건부로 하는 권고문 채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선언하였다. DAC 회원국들은 원조프로그램의 비조건부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표명하였다.

동 고위급회의는 “무역, 투자 및 개발: 세계경제에 있어 정책일관성의 도전(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The Challenges of Policy Coherence in a Global Economy)”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채택, OECD 각료이사회로 보냈다. 그리스가 DAC에 가입하였다.

- 2000년 -

DAC 고위급회의는 파트너십, ODA 비조건부 및 성평등에 관한 진행과정을 평가하였다. 동 회에서는 파트너십 전략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한 “빈곤감축을 위한 파트너십: 약속에서 이행까지(Partnership for Poverty Reduction: From Commitment to Implementation)”라는 정책선언서가 채택되었다.

성평등에 대해서 DAC 회원국들은 1995년 고위급회의에서 확정된 DAC의 성평등 목표들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동 보고서는 6월, UN특별회의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개발 및 평화”에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는 성평등 목표들을 개발전략 및 활동에 통합시키는데 있어서

지난 5년간 실질적인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약속(commitment), 자원, 훈련 및 이행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DAC 회원국들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였으며, 개발에서의 성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into development)는 국제개발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원조의 비조건부화와 관련하여 DAC 회원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ODA 비조건부화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Untying of ODA to LLDCs)"을 검토하고, 수개월간 강도 높은 협의를 통해 발전시켰다. 동 권고문은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기본 목표와 실행조항을 규정해 놓았다.

동 고위급회의에 이어, 참가자들은 UN아프리카경제이사회(ECA)의 사무국장인 K.Y. Amoako와의 회합을 가졌다. 동 인은 아프리카 주도의 개발 아젠다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의 자원, 정책연구, 시민사회를 동원하는데 있어 ECA의 역할은 아프리카 개발이슈에 관한 업무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강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내도록 강력한 아프리카의 능력(capacity)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AC 회원국들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하였다.

DAC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Gun-Britt Andersson 스웨덴 대표(DAC 부의장) 및 K.Y. Amoako ECA 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

2. DAG/DAC의 연도별 권고문 및 지침 목록

DAG/DAC Recommendations and Guiding Principles

- 1961 Resolution on the Common Aid Effort
- 1962 Directives for Reporting Aid and Resour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 1963 Resolu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id
- 1965 Recommendation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 1966 Guidelines for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 1969 DAC adopts concep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eparating ODA from "Other Official Flows"
- 1972 Firmer definition of ODA
- 1977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Meeting Basic Human Needs
DAC Guidelines for Local Cost Financing
- 1978 Strengthened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 1979 Guidelines on Local and Recurrent Cost Financing
Guidelines for Improving Aid Implementation
- 1982 Guidelines on Aid for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of Existing Services and Facilities
- 1983 Guiding Principles to Aid Agencies for Supporting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Guiding Principles for the Use of Aid in Association with Export Credits and other Market Funds (Mixed Credits)
- 1985 Recommendation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DAG/DAC Recommendations and Guiding Principles

- 1986 Aid for Improved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nd Implications for Aid Co-ordination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ommendation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Guiding Principles on Aid for Improved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nd Implications for Aid Co-ordination
- 1987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1988 Principles for Project Appraisal
- 1989 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Guiding Principles for Women in Development
- 1991 New Disciplines for Tied Aid and Associated Financing
Principles for Programme Assistance
New Orientations for Technical Co-operation
Principles for Aid Evaluation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 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 Good Practices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s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 1992 The Development Assistance Manual with principles and general orientations adopted in the areas of
- | | |
|-----------------------------------|----------------------------------|
| • aid co-ordination | • good procurement practices |
| • project appraisal | • tied aid |
| • technical co-operation | • population and development |
| • programme assistance | •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
| • women in development | •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
|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aid evaluation |

DAG/DAC Recommendations and Guiding Principles

- 1993 Orientations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 1994 Orientations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Disaster Mitigation
- 1995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New Global Context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red Development
Guidelines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Donor Assistance to Capacity Development in Environment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Pest and Pesticide Management
-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s on the Preparation of DAC Reviews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for Improve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and Sub-Tropical Wetlands
- 1997 Recommendation on Anticorruption Proposals for Aid-Funded Procurement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1998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ed to Clarify DAC Targets and Strategies
- 1999 Draft Report to the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on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The Challenges of Policy Coherence in a Global Economy

3. DAC의 부속기구 설치 목록

Creation and Evolution of DAC Subsidiary Bodies

- 1964 Working Party on Terms of Aid (replaced in that same year with the
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FA))
Working Party on Assistance Requirements
Working Party on UNCTAD Issues
- 1968 Ad Hoc Group on Statistical Problems
- 1969 Ad Hoc Working Group on Private Investment
- 1970 Ad Hoc Group on Statistical Problems becomes the Working Party on Statistical Problems
- 1980 Group of Energy Correspondents
- 1981 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
Correspondents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
- 1982 Correspondents Group on Aid Evaluation becomes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
- 1984 Correspondents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 becomes Expert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
- 1989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Environment
- 1993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 1994 Informal Network on Technical Co-operation Effectiveness
- 1995 Task Force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1996 Ad Hoc Working Group on PD/GG submits its final report having completed its three-year mandate
- 1998 Informal Network on Poverty Reduction
- Following a review of DAC subsidiary bodies, the following changes were made to reflect updated mandates:
- WP on Women in Development becomes the Working Party on Gender Equality
 - WP 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Environment becomes the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vironment
 - WP on Statistical Problems becomes the Working Party on Statistics
 - Informal Network on Technical Co-operation becomes the Informal Network on Institutional and Capacity Development

4. DAC의 최근 정책문서 (전문)

1989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1.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joined by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met on 4-5 December 1989 at the lev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ers and Heads of Aid Agencies. They agreed on the following policy statement on the orientation of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2. It is the essential conclusion of the DAC's work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that the vicious circle of underdevelopment that links high population growth, poverty, malnutrition, illiterac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be broken only through economic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policies which *integrate* the objectives and requirements of
 -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 Enabling broader participation of all the people in the productive processes and a more equitable sharing of their benefits;
 -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lowing population growth in those many countries where it is too high to permit sustainable development.
3.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ir own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effectiveness of their policies and institutions is central to their development successes and failures and the eventual attainment of self-reliance. External assistance can only be subsidiary to their own development efforts. However, depending on their increasingly diversified individual circumstances, adequate aid is essential, together with international policies which underpin an expansion of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flows.
4. The future ori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haped by a constructive dialogue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 put forward this policy statement as a contribution to such a dialogue.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is given in the 1989 DAC Chairman's Repor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Members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meeting on 3-4 May 1995 at the lev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ers and Heads of Aid Agencies, agreed on shared orientations for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and preparing for key challenges of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to the 21st century. Members also expressed deep concern that domestic preoccupations and budgetary pressures in some Member countries could seriously jeopard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 at a critical juncture.

For three decades, the highest rates of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have been achieved among developing countries, notably in Asia and Latin America. Many formerly poor countries have made rapid advances in standards of living, fuelled by expanded trade, capital and technology flows. Development co-operation has helped, and must continue to help, lay the foundations for their success. Yet many countries and people have not yet shared in this progress, or have even lost ground. At the same time,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countries in Africa, are adopting far-reaching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They seek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their people, and to integrate successfully into a highly competitive, interdependent world.

Development and greater interdependence require high levels of domestic effort, high standards of accountability, and a strong civil society. Open, participatory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are increasingly important factors. Meanwhile, the basic notion of security is being redefined, placing much more weight on the needs and concerns of human beings and the quality of their environment.

More widespread and sustainable progress now depends on building strong capacities to achieve good governance, reduce poverty, and protect the environment. Civil conflict, terrorism, population and migration pressures, epidemic disea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nternational crime and corruption hinder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ncern us all.

Within this new context, thriving developing country partners will contribute to greater prosperity and greater security in their own regions and globally. We therefore endorse the following strategic orientations, and commend them for active support in our own countries and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investment

Support for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extraordinary achievements in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Well over two billion people have increased their incomes, life-expectancy, education, and their access to basic services.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lso led to the emergence of new economic partners who play an increasingly dynamic role, generating new trade, investment, and jobs as well as the need for adjustment in our own countries. Developing country markets for OECD exports have expanded by 50 % since 1990.

2. Combating poverty at its roots is a central challenge

Support for development reflects our enduring concern for the human dignity and well-being of others. Despite the promising trend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still live in extreme poverty. Yet, building on lessons learned, there are good prospects for significantly reducing poverty in the coming years.

3. Strategies for success are now available

Experience has shown that achievement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ective co-operation, need to integrate a number of key elements:

- A sound policy framework encouraging stable, growing economies with full scope for a vigorous private sector and an adequate fiscal base.
- Investment in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education, primary health care, and population activities.
- Enhanced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nd notably women, in economic and political life, and the re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 Good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 Sustainable environmental practices.
- Addressing root causes of potential conflict, limiting military expenditure, and targeting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efforts toward longer-term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4. Development assistance is vital to complement other resources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ir own development. Their own earnings, savings and tax revenu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investment in thei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For development to succeed, the people of the countries concerned must be the "owners" of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Private investment flows are mainly attracted by the most dynamic countries and sectors of the developing world, and private donations are directed primarily to immediate humanitarian nee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mains vital for many key inves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poorer countries.

5. Other policies need to be coherent with development goals

Expanded trade, investment and other linkages, and the growing rol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notably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have raised the stakes for OECD countries. It is critical that other policies not undercut development objectives.

6. Our co-operation must be effective and efficient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must be managed for maximum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 are confident that past achievements and lessons learn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ow clearly how best to reinforce current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agreed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for effective aid must be implemented with rigor. Critical evaluation must be an ongoing feature of development assistance efforts, to identify the best and most cost-effective approaches. Public accountability, based on indicators of achievement, is essential.

7.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will advance these priorities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fundamental concern of the OECD.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helps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and promotes job-creating growth and social cohesion on an international scale. OECD members commit substantial resources toward this effort, including more than \$50 billion annually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90 % of the world's total.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ext below constitutes the introduction and summary of the report adopted by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eting on 6-7 May 1996 at the lev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ers and Heads of Aid Agencies

Values and interests

As we approach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time is ripe to reflect on the lesso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ver the last 50 years and to put forward strategies for the first part of the next century. This report sets forth the collective views on these matters of development ministers, heads of aid agencies and other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eting as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year 2000, four-fifths of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be liv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most with improving conditions. But the number in absolute poverty and despair will still be growing. Those of us in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have a strong moral imperative to respond to the extreme poverty and human suffering that still afflict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We also have a strong self-interest in fostering increased prosperi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ur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ll countries causes us to seek to expand the community of interests and values needed to manage the problems that respect no borders-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igration, to drugs and epidemic diseases. All people are made less secure by the poverty and misery that exist in the world. Development matters.

The record of the last 50 years, from Marshall Plan aid to the network of development partnerships now evolving, shows that the efforts of countries and societies to help themselves have been the main ingredients in their success. But the record also show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has been an essential complementary factor in many achievements: the green revolution, the fall in birth rates, improved basic infrastructure, a diminished prevalence of disease and dramatically reduced poverty. Properly applied in propitious environments, aid works.

Co-oper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OECD and other global and regional fora has greatly enhanced these efforts and shaped an evolving multilateralism in which all countries hold a vital stake.

We have learned that development assistance will only work where there is a shared commitment of all the partners. We have seen the results in countries which have grown, prospered and achieved industrialisation; they no longer depend on aid but stand on their own feet and participate in the global economy. We have seen, on the other hand, the countries in which civil conflict and bad governance have set back development for generations. And we have learned that success takes time and sustained international and local effort

As we look ahead, we see an overwhelming case for making that effort. As a crucial part of this undertak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sustain and increase the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reverse the growing marginalisation of the poor and achieve progress toward realistic goals of human development. Domestic preoccupations in Member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ffort at a critical juncture. Today's investmen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yield a very high return over the coming years.

We believe that ways must be found to finance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re adequate, efficient, predictable and sustainable. The full implementation of current agreements to pay arrears and create workable financing systems is an essential part of efforts to ensure that the United Nations and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void severe crisis and continue to play their vital roles.

We also recognise that those responsible for public money are accountable for its effective use. We have a duty to state clearly the results we expect and how we think they can be achieved.

It is time to select, taking account of the many targets discussed and agreed at international fora, a limited number of indicators of success by which our efforts can be judged. We are proposing a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effort through which we can achieve together the following ambitious but realisable goals:

Economic well-being:

- a reduction by one-half in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by 2015.

Social development:

- universal primary education in all countries by 2015;
- demonstrated progress toward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by eliminating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2005;
- a reduction by two-thirds in the mortality rates for infants and children under age 5 and a reduction by three-fourths in maternal mortality, all by 2015;
- access through the primary health-care system to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all individuals of appropriate ages as 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the year 201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by 2005, so as to ensure that current trends in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are effectively reversed at both global and national levels by 2015.

While expressed in terms of their global impact, these goals must be pursued country by country through individual approaches that reflect local conditions and locally owned development strategies. Essential to the attainment of these measurable goals are qualitativ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more stable, safe, participatory and just societies. These include capacity development for effective, democratic and accountable governa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We will also continue to address these less easily quantified factors of development progress.

Effective international support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achieving these goals. This is far from saying that they can be achieved by aid alone.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as in the past, will be made by the people and governmen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But where this effort is forthcoming it needs and deserves strong support from the industrialised countries. We commit ourselves to do the utmost to help:

- **first**, by a willingness to make mutual commitments with our development partners, supported by adequate resources;
- **second**, by improving the co-ordination of assistance in support of locally-own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 **third**, by a determined effort to achieve coherence between aid policies and other policies which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These approaches were set out in broad terms in the statement of policy that we adopted in 1995 entitled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New Global Context*. The report that follows builds on this statement and proposes specific new practical measures to achieve the vision of partnership for development.

We intend our report to be a contribution to the broad contemporary effor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 rich process of dialogue and decisions is underway-within the OECD, in the Interim and Development Committees of the World Bank and IMF, in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in the G7, and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is heightened international focus on development co-operation reinforces our conviction that development matters.

The success or failure of poor people and poor countries in making their way in an interdependent world will have a profound influence in shaping the 21st century. We offer our proposals in this report with confidence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effective in supporting development, and that the results will be well worth the effort they will demand of our societies. The stakes in a stable, sustainable future for this planet and all who will inhabit it are far too high for us to forego that effort.

1999 **On Common Ground: Converging Views on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Turn of the Century**

Growing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 recent years built a stronger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w it can be achieved.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sponsored by the United Nations, which have set out an agenda and brought consensus to what people-centred development means in process and substanc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encies are explicitly taking a more systemic and strategic approach to co-operation arrangements and techniques based on ownership and participation by th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These concepts, goals and endeavours stem from a host of major policy documents issued in the past few years.¹

Development agencies increasingly recognise the need for a *long-term integrated vision of development*, emerging from and supporting the *country's ownership* of its own development process; they call for *partnership*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ssistance agencies, NGOs and the private sector in defining development needs and implementing programmes. Finally, they all stress the need for concrete *development results*. Encouragingly, it appears that a wide range of developing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have moved, to varying degrees, to exercise their own leadership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ir strategies, in monitoring results and in co-ordinating with their external partners.²

Common Principles

The following principles form building blocks for partnership among all development actors. They are common to all partnership efforts, whether initiated by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Long-term integrated vision of development

Over the years,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has undergone fundamental change. It has expanded to take more fully into account how markets, societies and governance interact and evolve. The importanc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in these development processes has also received more recognition. From this, it

-
1. See Appendix. The present Appendix includes policy documents by multilateral organisations. It will later be supplemented with policy documents by bilateral agencies.
 2. A non-exhaustive list includes: Tanzania—*Development Vision 2025*; Ghana—*Vision 2020*; Egypt—*Vision 2017*; Uganda—*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 Bolivia—*Operational Action Plan 1997-2002*. Typically, where governments have been able to produce such strategies, they also manage reasonably well to organise the co-ordination proces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sectors).

follow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can only be achieved by integrated strategies that incorporate key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elements. All components—macroeconomic, financial, structural, social and human—should be brought together in a long-term, holistic and strategic approach.

To achieve eff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address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on the one hand, with structural, social and human issues, on the other, in a balanced way, thereby integrating the following key elements:

- A sound policy framework encouraging stable, growing economies with full scope for a vigorous private sector and an adequate fiscal base.
- Investment in pro-poor approaches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education, primary healthcare and population activities.
- Enhanced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nd notably women, in economic and political life, and the re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 Good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 Building institutions, including social safety nets, that cushion the negative effects of and enhance developing countries resilience vis-à-vis external shocks and crises, while helping them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globalisation.
- Sustainable environmental practices.
- Addressing root causes of potential conflict, limiting military expenditure, and targeting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efforts towards longer-term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Ownership by the country

The view that each developing country and its people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ir own development is widely accepted nowadays. Experience shows that success has been achieved only where the people and the institu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have made sustained efforts. It therefore follows that the developing country is the essential agent for organising co-operation efforts. There is no room for paternalistic approaches. Countries must be in the driver's seat and set the course. They must generate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and determine goals and the phasing, timing and sequencing of programmes.

The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reducing poverty and the preservation of a political environment conducive to peace,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lies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the role of developed partner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being to support such efforts.

The developing country is the legitimate organiser for co-operation efforts, through relationships and mechanisms that reflect the particular local circumstances.

Prime responsibility for overall country-specific co-ordination, including macro-economic and project/programme issues, lies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in cases where local interest or capability is not tuned to this ambition, external partners will encourage regular forums for co-ordination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nd ensure that their own representatives participate; where capacity for co-ordination is insufficient, external partners will support efforts for capacity building.

Partnership

Earlier aid efforts involved working almost always with central governments. Toda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is working with many more partners to meet demands for greater efficiency, respond to more pluralistic and decentralised political systems, and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dynamic private sector, local ownership and participation by civil society. Defining development needs and implementing programmes should be done in the partnership mode, with government (national, state, city and municipal) in the driver's seat and involving civil society in all its forms, private sector (domestic and foreign) and development agencies (both multilateral and bilateral). Such partnerships may also be needed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o identify and supply "public goods" required to overcome specific barriers and bottlenecks to development.

Country-own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targets should result from an open and collaborative dialogue between developing country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on their shared objectives and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to the common endeavour; such strategies and targets should be the basis for external partners in their dialogue with the developing country authorities on their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Each external partner's programmes and activities should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a country-owned strategy in ways that respect and encourage strong local commitment,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and ownership, as well as in ways that avoid duplication and enhance synergy.

Development results

In order to effectively relate financial inputs—whether their origin be domestic or foreign, public or private—to the ultimate outcome of development efforts, it is increasingly acknowledged that, in addition to setting quantitative goals for such financial inputs, quantitative goals must be set for results countries want to achieve with their development efforts, especially in the area of poverty reduction. Setting goals implies the establishment of processes for systematic monitoring of their achievement. The articulation of development goals and monitoring of results promotes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two basic elements in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procedures by which its implementation is governed, should be accountable, transparent, effective and visible; partners should undertake to harmonise tools and practices and should use channels and methods that do not undermine the values of ownership and partnership.

Joint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including quantitative indicators, should be set up to monitor development progress.

External partners should ensure that the entire range of their policies are consistent with and thus do not undermine development objectives.

Partnership approaches to development tend to be time-consuming and labour intensive, especially in the beginning; however, external partners should not consider this as a burden, but rather as an investment toward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gencies staff should therefore be effectively interested, motivated and trained to put partnership principles into practice.

Future directions

Experience shows that implementing the approach described above is not an easy task, neither for local nor for external partners. Agre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above principles will not automatically lead to full-scale implementation. Despite converging ideas, there is still proliferation of isolated efforts. This leads sometimes to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at the operational end. It is also detrimental to the need for partners involved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us, while recognising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se arrangements, external partners should be prepared to re-visit and discuss their own practices so as to indeed give space to assumed ownership. Harmonising tools and procedures will not only help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reduced administrative demands, but should als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transaction cos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is respect, so-called sector-wide approache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project approaches to developmen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poverty has reached an historic high, whil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ffort has reached an historic low. If we do not succeed in significantly improving the quality of development assistance, we risk entering the Millennium with globalisation—which should enhance the foundations for development—possibly weakening them. What is required is a concerted push to sustain the political will to pursu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way that will reduce the inequaliti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needs to ensure that its performance is measured against the above principles; that we harness collective strengths and knowledge to improve the impact at the country level; and that we engage vigorously with those "outside our ground"—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other policy areas, the private sector, trade institutions, investment houses, and the public at large—to attain the goals for an inclusive global society. Doing so will add *substance* and *value* to the process of convergence.

2000

Partnerships for Poverty Reduction: From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Statement by the DAC High Level Meeting, Paris, 11-12 May 2000

1. Four years ago we set out a vision of a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In our report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we focused attention on the following goals from the commitments reac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ajor UN Conferences of the 1990s:

- Reduce by at least one-half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by 2015. (Copenhagen)
- Universal primary education in all countries by 2015. (Jomtien, Beijing, Copenhagen)
- Demonstrated progress toward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by eliminating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2005. (Cairo, Beijing, Copenhagen)
- Reduction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y two-thirds by 2015. (Cairo)
- Reduction of maternal mortality by three-fourths by 2015. (Cairo, Beijing)
- Access through the primary health-care system to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all individuals of appropriate ages, including safe and reliable family planning methods, by 2015. (Cairo)
-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peration in all countries by 2005, so as to ensure, by 2015, a reversal of current trends in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the accum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io)
- Continue addressing qualitative aspects of development that are essential to the attainment of the aforementioned goals; these include capacity development for effective, democratic and accountable governa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Copenhagen, Vienna)

2. In the past four years, in partner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 organisations, we have made major strides towards the common ground of a more effective mod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an agreed set of indicators to monitor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Our meeting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us, with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o reconfirm shared commitments to this broad partnership. We look forward to enhanced collaboration in country-level frameworks.

Poverty Reduction

3. Eradicating poverty is a shared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establishing a broad and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poverty reduction. This includes the policies needed to generate pro-poor economic growth, producing broadly based rises in incomes through private sector-led, activity Investment in basic social services (education, health and water) is also fundamental in this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this approach extends to addressing, with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ssues of equity and the risks and vulnerability the poor face, as well as to supporting their empowerment to change the unacceptable conditions of their lives, through the activ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their capabilities.

4. Development co-operation is ultimately about our joint interest in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ur commitment to the respect for the equal rights of all human beings. These universally accepted norms are manifested in the UN Charter,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in the Conventions based on the Declaration.

5.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o fully share in all aspect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life has to be an integral part of this comprehensive effort to fight poverty.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equally important. This calls for a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se dimensions into all areas of development.

6. We have mandated the DAC to develop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laying out the essential building blocks of coherent and more effective policies and action.

Ownership and Partnership

7. The main responsibility for combating poverty lie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each developing count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to support national policies based on self-reliance and responsibility by the partner countries. Ownership and partnership -- involving in particula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in both donor and partner countries -- based on a shared view of countries' needs, capacities and objectives are the foundation of our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This requires the building and strengthening of the developing country's own capacity to diagnose and act on its anti-poverty agenda and other development issues.

8. An agenda for strengthening ownership and partnership has already emerged in recent years: common frameworks for programme implementation; partner-led co-ordination; transparency, simplification and, wherever feasible, sustained progress towards harmonising donor procedures, in particular those concerning auditing and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continuing efforts toward untying; discouraging the proliferation of isolated projects; enhanced use of local capacities; joint monitoring and evaluation; improved coherence; and innovative ways of financing.

9. While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aid, including for our own constituencies, we must pursue concerted efforts to reduce multiple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impose a serious burden on limited partner country capacity. Such requirements translate into separate procedures for each donor, for example on reporting, procurement and project supervision. And where projects establish stand-alone management structures, they often hire away the best talent from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t the expense of strengthening existing government and other institutions. We must end such practices and work together to support national programmes, involving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10. We welcome the convergenc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ound comprehensive country-level development frameworks, integrating national anti-poverty strategies (as captured in country-owned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There are promising experiences in implementing partnership principles on the ground in a number of partner countries. Now, this effort has to spread and become the guid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ountry ownership takes time to fully develop and requires mutual trust between the developing country's government, its people and its external partners. Some key challenges remain, however, to be addressed, both by recipients and donors. We call upon the DAC to consider the guidance needed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agenda.

11. Pursuing a partnership approach to development will tend to focus bilateral co-operation on those countries that have demonstrated willingness and ability in taking ownership of their own development process. This is important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and builds on the results of intensive research on how to maximise returns from aid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12. At the same tim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tuation in those countries where such willingness and/or ability does not yet exist. Where willingness exists, we will support governments to strengthen institutional capacity and 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eir governance and policies. All too often, national capacities in these countries are further diminished by recent or ongoing conflict and ravaged infrastructures, compounding the challenges of poverty and human misery, in many instances against the backdrop of overpopulation. Furthermore, some of these countries pose continuing risks of embroiling neighbouring countries in violent conflict as well. In addition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 can best help these countries by encouraging them to pursue policies that will prevent future conflict as well as otherwise address issues of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and by helping them build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Globalisation and Policy Coherence

13. Global co-operation, exchange and integration are in the interest of all. Globalisation is bringing new opportunities to the partner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areas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finance,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challenge is to ensure that globalisation will benefit poor people.

14. In many parts of the world maj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cessful development is still all too rare or fragile, and depends on meeting complex challenges of governance, conflict resolution, demography and disease. A concerted effort in partnership is urgently required for preventing HIV/AIDS becoming an even greater obstacle to development.

15. Developing the social and economic capabilities needed to participate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global economy is also a major frontier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 globalisation process and to minimise the risk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have to take some key actions in areas such as security, transparent and stable financial systems, trade access,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 In these areas, regional and broader South-South co-operation is also important. We will encourage and support progress and programmes at these levels.

16. In the area of trade, we welcome the wide recogni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at liberalising trade and investment, as an essential part of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trategy, is instrumental to sustained poverty-reducing development and that they have a major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policies in this regard. We clearly recognise that the efforts of the OECD countries to promote policy coherence are essential as well. This involves, for example, our policies relevant to providing enhanced access to our markets, improved rules under the WTO system, appropriate responses to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system building. It also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capacities of partner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We mus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he globalisation processes an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framework, as provided under the WTO system.

17. We are committed to promoting greater coherence of overall OECD Member policies in pursui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We have mandated the DAC to develop a Checklist on Policy Coherence that can be a reference point throughout our public policy systems. In this connection, we encourage the OECD in its commitment to systematically integrate development issues throughout all its work.

Governance

18. The success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depends on the will and capacity of individual countries to pursue policies that promote equitable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Recent analyses of impediments to poverty reduction -- including that by Nobel Prize winner Amartya Sen -- have shown that, for the incomes and the general well-being of the poor, women and men, to rise, human rights and freedom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them to take pa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Democracy,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are thus central to poverty eradication.

19. Good governance requires a broad approach to partnership extending beyond government and parliaments to include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ogether with partner countries, we will intensify our efforts to effectively involve local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s well as other key development stakeholders -- including professional associations -- in the early stages of program and project planning.

20. However, with responsibility and partnership, go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Recent financial crises have brought home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a stable financial framework.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as been an important milestone i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Financing Development

21. Looking at the future of development financing, it is important that developing countries progressively rely on their own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complemented increasingly by sustained long-term private capital flows. A role of aid is to contribute to this process and to support efforts to diminish aid dependence, particularly in those countries, regions and sectors where access to private capital flows is still elusive or limited.

22. In the field of global public goods, aid will have to play an active role in financing crucial inputs to development that private investors or individual countries are themselves unable to produce. These include, for example, appropriate health and medical research, environmental programmes which can only be produced by collective action,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respect for human rights.

23. Aid has a crucial role in achiev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by supporting the efforts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undertaking themselves to make development progress, especially in the area of poverty reduction. In committing ourselves to this course for the future, we will continue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aid flows. We further recognise that an increased volume of aid, linked to its effective use, i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We will increase our efforts to make additional funds available. In doing so, most Members are guided by the 0.7 per cent ODA/GNP target.

- INDEX -

□ 국제협력 용어

- 마샬플랜 / 1, 3, 5, 23
세계인권선언 / 4
대외원조법 / 13, 34
확대기술원조계획(EPTA) / 4
PL 480 / 5
1% 목표 / 6, 20
UN개발10년(UNDD) / 12, 29
공적개발원조(ODA) / 26, 31
0.7% 목표 / 27, 46, 48, 78
원조조건 G.E 84%, 86% / 31, 41
인간기본욕구(BHN) / 32, 34, 40
신국제경제질서(NIEO) / 31, 32, 34, 35, 37, 53
UN여성 10년(1976-1985) / 61
여성과 개발(WID) / 71, 72, 82
원조평가 / 22, 29, 31, 33, 45, 48, 50, 54, 65, 71, 77, 82, 85
ODA 배증계획 / 41
정책대화 / 48, 53
최빈국에 대한 GNP/ODA 0.15% 목표 / 49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 68, 69, 73, 79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69, 70, 80, 84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 / 78, 79
DAC 매뉴얼 / 71, 73, 77, 79, 81
지구서밋 / 83

DAC 리스트 / 80, 84

포괄적 교섭(Global Negotiation) / 47, 48

혼합용자 / 52, 59, 65, 75

□ 국제협력기관

개발센터(DC) / 9

개발원조그룹(DAG) / 7, 10

개발원조위원회(DAC) / 1, 8, 10, 12,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8, 10

경제협력기관(ECA) / 3

국제금융공사(IFC) / 5, 6

국제노동기구(ILO) / 2, 2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혹은 세계은행(W.B) / 1, 3, 6, 12, 36,
46, 55, 61

국제통화기금(IMF) / 1, 34, 36, 55, 61, 63, 67

노르웨이 국제개발청(NAID) / 18

미국국제개발청(USAID) / 13

미주개발은행(IDB) / 7

세계보건기구(WHO) / 3

식량농업기구(FAO) / 2, 18, 30, 44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 / 14

아시아개발은행(AsDB) / 2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19

영국 해외개발청(ODA) / 20

유엔개발계획(UNDP) / 21

유럽경제공동체(EEC) / 6, 38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3, 4, 8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2
유엔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 / 2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 32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 14
콜롬보플랜(CP) / 4
한국국제협력단(KOICA) / 78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 13

업무자료 협력정책 2001-4-79

公的開發援助의 歷史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발행	2001년 12월
편집 및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우)110-782(전화 : 740-5114)
Website	http : // www.koica.or.kr
인쇄	동화인쇄사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